

역사

JEJU CULTURE SYMBOL

제주 문화 상징

99

삼성혈

제주고산리신석기유적

제주목관아

관덕정

향파두리항몽유적지

혼해장성

원당사지오층석탑

제주4·3사건

유배의 땅

하멜의 포도

김만덕

봉수와 연대

오현단

제주도식고인돌

호적중초

제주삼양동선사유적

잣성

진지동굴

출륙금지

법화사지

고득중

읍성과 진성

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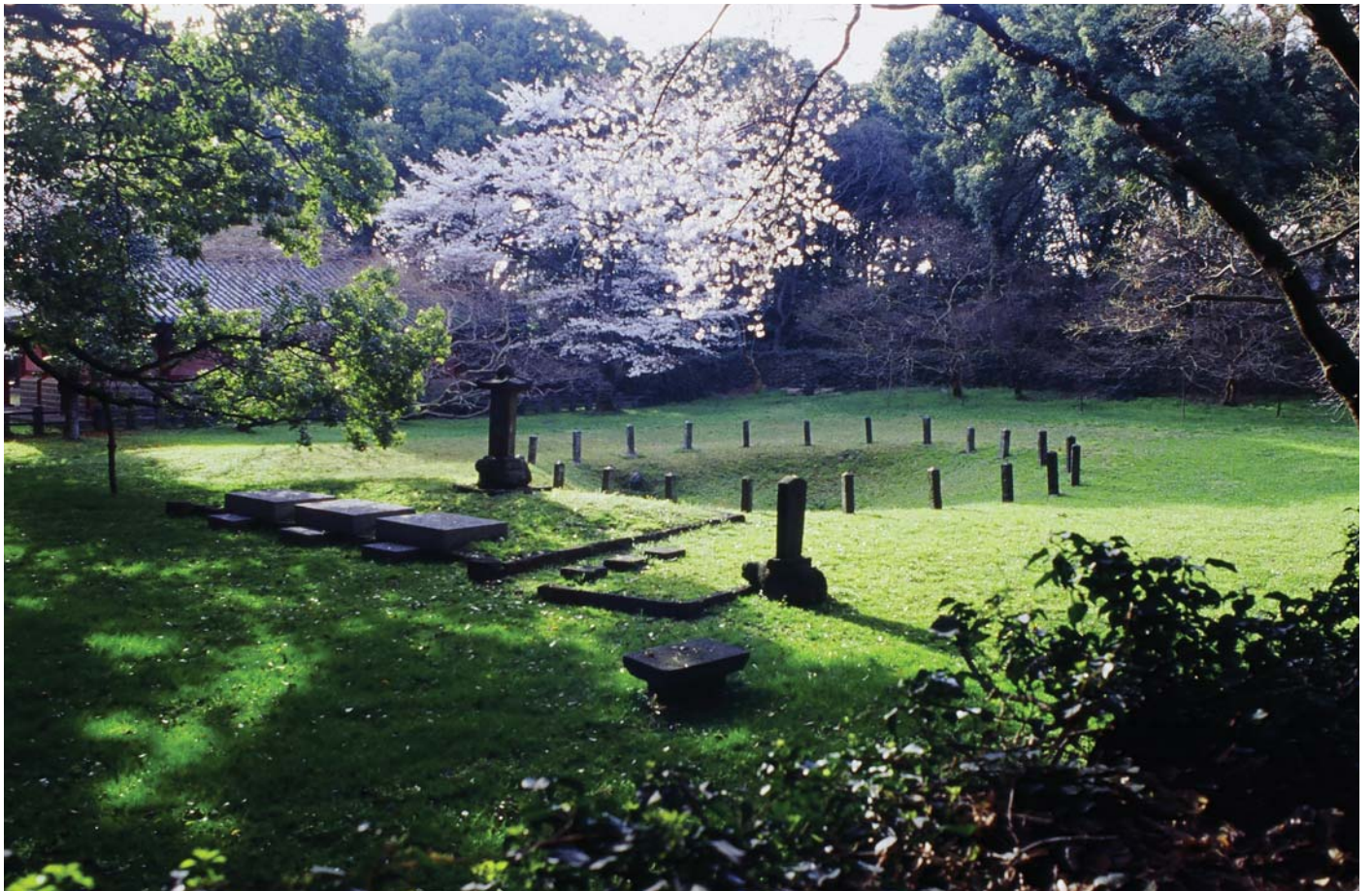
삼성혈

선정 취지

삼성혈은 제주사람들과 제주문화의 전설적인 발상지로, 1964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34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곳이다. 한라산의 영기가 내려뻗은 이곳은 고양부 삼신인이 용출하여 탐라국을 개국하였다는 삼성신화의 성지로 그 의미가 뚜렷하여 제주문화의 상징으로 선정되었다.

정의와 개설

삼성혈은 제주시 이도1동 1313번지 외 7필지에 자리 잡고 있다. 삼성혈은 세 신인이 출현한 ‘品’ 자 모양의 3개 구멍을 말한다. 위쪽은 고을나, 왼쪽은 양을나, 오른쪽은 부을나가 지중용출(地中湧出)했다는, 즉 땅 속에서 솟아난 곳이라 전한다. 이들 세 신인은 제주의 첫 주민임과 아울러, 제주의 전통적 토착성씨에 해당하는 고(高)·양(梁)·부(夫) 등의 삼성(三姓)이 모시는 시조(始祖)이기도 하다. 세 신인이 삼성혈에서 용출했다는 것은 삼성신화(三姓神話)의 첫 단락을 구성하는 화소이다. 삼성신화에는 동해 상상국의 세 왕녀가 석함(石函)에 담겨 떠오니, 세 신인이 나이 차례에 따라 나눠 장가들었다는 이야기가 둘째 단락을 이루고 있다. 셋째 단락은 삼신인이 활을 쏘아 거주할 땅을 정하여 농업과 목축을 시작한 뒤 날로 번성하고, 계층분화가 이루어져 나라를 세웠다는 내용이다. 삼성신화는 삼성의 시조신화이자, 정치체제와 그 지배자의 등장을 주요 화소로 삼는 건국신화의 성격도 띠고 있다. 삼성신화는 신화학적 내용이기



주변의 나무들이 신비롭게도 모두 안쪽을 향하고 있는 삼성혈 / 사진 현명자



2008년 봉행된 춘기대제

는 하나 원초적인 제주사회의 형성과 변천 및 문화배경을 담고 있다. 즉 삼성혈은 삼성신화의 주인공인 세 신인이 태어난 곳이고, 삼성신화는 세 신인의 출생 및 성장과 그와 관련한 제주사회의 변화로 구성되어 있다.

상징의 의미

삼성혈은 삼성신화의 주인공인 세 신인이 태어난 곳이다. 또 삼성신화는 제주의 주민 출현, 문화의 유입과 수용, 생업활동의 변천, 정치적 지배자의 출현과 정치조직체의 수준 및 그 영역의 분할과 통합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내용은 문화의 유입과 수용에 따라 제주사회가 형성·변천되었고, 그에 따른 정치체제의 등장과 그 수준을 가늠하는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 따라서 삼성혈은 제주사람들과 제주문화의 발상지로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이다.

조선시대 이래 삼성혈은 경외의 대상으로도 떠올랐다. 즉 제주목사 이수동(李壽童)이 중종 21년(1526)부터 삼성의 후예와 제주사람들로 하여금 세 신인에 대한 제사를 모시게 한 이래 줄곧 이어지고 있다.

활용화 방안

- 애니메이션 혹은 영상물 : 삼성혈과 세 신인의 출현 및 성장을 제주문화의 형성변천과 연계해 설명하는 고급스런 영상물을 만들어 제주사회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린다.
- 문화관광프로그램 기획 개설 : 삼성혈을 중심으로 연혼포(延婚浦) · 혼인지(婚姻池) · 사시장을악(射矢長兀岳) · 삼사석(三射石) 등 삼성신화와 관련된 역사유적을 연계 ·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제주 농산물과 공예품의 브랜드로 활용 : 삼성혈의 상징과 의미를 활용하여 가장 제주적인 브랜드로 명품화 한다.
- 전설을 디자인한 고급기념품 개발 : 삼성신화를 소재로 삼성혈 구내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특화된 고급기념품을 개발하여 내외국인을 겨냥한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

참고 자료

『世宗實錄地理志』

『高麗史』

『星主高氏家傳』『東文選』

『瀛洲誌』

「93 탐라문화학술심포지움 발표자료」, 『삼성신화의 종합적 검토』,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3.

| 집필 김 일 우

제주고산리신석기유적

선정 취지

제주고산리신석기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후기구석기 최말기에서 신석기 초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양상과 초기신석기 문화의 성격 및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 동안 공백으로 남아있던 한국 신석기문화의 시작 시기를 8,000년 전에서 12,000년 전까지 끌어 올린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국가사적 412호(1998. 12. 23.)로 지정되었고, 지금은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실려 있다.

정의와 개설

고산리유적은 4차례에 걸친 지표·시굴·발굴조사를 통해 좀돌날몸돌(細石矽), 좀돌날, 찌르개, 뚜르개, 밀개, 굽개, 새기개, 흙날석기, 양면석기, 가공혼석기, 화살대연마기, 망치돌 등 후기구석기 전통의 석기와 함께 신석기시대의 산물인 식물성 섬유질이 혼입된 고토기가 확인되었다.

고산리에서 확인되는 토기는 모두 12,000~10,000년 전에 생산된 고토기(古土器)이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토기 성형시 식물줄기가 혼입된 섬유질토기(纖維質土器), 일명 ‘고산리식토기’를 비롯하여 원시무문양토기, 덧띠새김무늬토기[隆起文土器], 누른무늬토기[押捺文土器], 눌러그은무늬토기[押捺文土器], 지자문토기(之字文土器)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러한 고산리 유물세트는 후기구석기 최말기에서 신석기초기문화로 이행



사진 원명자

현재 제주고산리신석기유적지

되는 전환기의 문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후기구석기시대의 세석인문화가 지속되면서도 초기신석기의 산물인 양면을 눌러 뿔 석촉과 원시형 고토기가 출현하는 복합적인 문화양상을 띠고 있다.

실제로 고산리유적의 탄소연대 최고측정치는 $10,180 \pm 65$ B.P.가 나왔다. 따라서 고산리주민이 유입되는 초창기 유물조합은 아무르강 하류의 연대와 비교하여 적용하면 11,000~10,000 B.P.에 상한을 둘 수 있다. 이 시기는 해수면의 상승기(上昇期)로, 황해초원지대를 통한 제주고산리로의 문화 전파나 수렵집단의 수월한 이동은 적어도 10,000 B.P. 이전에 가능했으며 이는 각종 해수면의 변동 자료에서도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고산리문화는 발달된 수렵 중심의 생업체제를 유지한 집단의 문화이다. 동북아 전체의 전환기의 특징인 후기구석기 최말기 좀돌날문화[細石刃文化]의 전통 속에서 각종 박편(剝片)양면가공 석기조성(石器組成)이 나타나는 한편 저화도(低火度)의 원시형 고토기인 식물성섬유질토기[高山里式土器]를 사용한 한국 신석기초기문화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상징의 의미

고산리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후기구석기에서 신석기 초창기로 이행되는 마지막 수렵채집집단의 발달된 문화를 보여주는 유적이다.

고산리문화는 후기 구석기 전통의 **좁돌날문화(細石刃文化)** : 아주 작은 돌날을 가공하여 침두기, 긁개, 새기개, 뚜르개, 돌날을 연결한 칼(複合石器) 등을 만듦을 최고로 발전시키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낮은 온도에서 구어 낸 원시용 그릇(高山里式土器)을 만들고 사용한 초기신석기 문화이다.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자료

고산리유적 출토 유물(위)과 발굴 모습

특히 이 시기의 고산리주민들은 우리나라 최초로 동력을 이용한 사냥도구인 화살을 사용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어로도구인 작살을 발명한 집단이다. 또한 고산리 주민 집단은 본격적인 농경이 발생하기 이전 어로·수렵·채집 생활을 영위하면서 제주 최초로 정착한 주민집단이기도 하다.

활용화 방안

- 고산리유적전시관(高山里遺蹟展示館) 건립 : 동북아 전체 초기신석기문화의 전개양상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전환되는 문화양상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하여 문화관광자원화한다.

참고 자료

강창화, 『濟州 高山里 新石器文化 研究』,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강창화·오연숙, 『濟州高山里遺蹟』, 제주도·제주대학교박물관, 2003.
이청규 외, 『濟州高山里遺蹟』(圖版), 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 집필 강 창 화

제주목관아

선정 취지

제주목관아는 탐라국 이래로 제주역사·행정의 중심 공간이다.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진행된 발굴조사 결과, 제주목관아의 중심건물인 연희각, 홍화각을 비롯한 내아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도로 및 대문지, 연못, 우물 등이 확인되었다. 또 이들 유구의 아래층에서 조선전기층, 다시 그 밑으로 고려·탐라시대 문화층이 층층이 확인되어 제주목관아 곳곳이 고대 탐라로부터 중요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자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어 국가사적 380호(1993. 03. 31.)로 지정되었고, 발굴된 중요건물터가 대부분 복원되었다.

정의와 개설

제주목(濟州牧)의 관아라 함은 제주읍성(濟州牧城, 濟州邑城, 州城) 안의 관아시설을 지칭한다. 현 사적지로 지정된 곳은 옛 대촌현(大村縣) 지역으로 조선 시대에는 제주목의 관아가 집중 분포했던 곳이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탐라국의 관아터로도 알려져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태종 16년(1416) 제주도를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으로 구획할 당시 제주목의 본읍(本邑)으로 정해지면서 더욱 번성하였다.

제주목 관아시설은 관덕정(觀德亭)을 중심으로 좌우인 남쪽과 북쪽에 치중되어 있었다. 특히 좌측인 북쪽에는 주로 목사의 동헌과 관아시설, 우측인 남쪽



사진 시현열

복원된 제주목관아 전경

(현 제주대학교 병원 일대)에는 판관과 관련된 관아시설이 있었다. 주요 시설들을 보면 영주관(客舍)을 중심으로 영청(營廳)인 홍화각, 제주목사의 동헌인 연희각, 동헌의 외대문인 종루(鐘樓), 망경루·애매헌·굴림당, 그리고 판관의 동헌인 잔주헌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었다.

실제로 발굴조사에서 노출된 18세기 당시의 관아 건물지 배치가 『탐라방영총람(耽羅防營總覽)』(1760년대)에 기록된 관아건물 배치와 일치함으로써 모든 건물터의 주소록과 건물 명칭이 그대로 부여되었다.

발굴된 관아터는 유구의 중복상태, 층위, 방위각, 축조방법 등으로 살펴볼 때 크게 세 번에 걸쳐 관아 시설물이 변천하고 있다. 마지막 제3차 시기(17C말~19C말)의 건물지는 모두 18동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의 건물과 담장은 모두 일정한 축조방향을 갖고 있는데, 대체적인 방향은 N20° E이다. 제1차 시기(15C초~16C중반)에 만들어진 정북방향의 외대문(鐘樓)과 중대문을 연결하는 중심



제주시 자료

18세기초 제주목관아의 모습을 그린 『탐라순력도』 중 「제주전회」

도로 동편에서 흥화각[영사청(營史廳), 직무장소, 문서고], 우연당[연회와 시주(詩酒)의 장소], 예고[각종 진상물품 보관장소], 호고[곡식과 식육품 보관장소] 터가 확인되었으며, 서편에서는 영리장방[호방과 이방 등의 직무실], 교방[관비 악기교육장], 심약방[심약고 의생의 거처] 터가 확인되었다. 또한 동헌마당을 연결하는 도로의 동편에는 굴림당[시주의 장소], 서편에는 동헌[상아(上衙)의 동헌, 연회각지, 내아[목사의 살림채], 노비행랑지[관노비 거처]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곳에서는 탐라시대의 적갈색경질토기, 고려시대의 청자와 도기, 조선시대의 분청사기, 백자, 도기, 기와류가 출토되었다. 특히 '만호(萬戶)', '목사(牧使)' 명 등의 기와류와 '관상(官上)', '상아(上衙)', '대해(大海)' 등의 침각(沈刻)된 백자류가 출토되었다.

상징의 의미

제주목관아는 탐라국 이래 약 2천년간 제주역사의 중심지였다. 제주의 행정
이 모두 이곳에서 입안되고 처리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전통
시대에는 도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권력의 상징으로 19세기 및 20세기 전반
에는 도민의 원한이 맺힌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에게 있어서 이 지
역은 서울의 덕수궁, 경복궁, 경화궁보다도 더 의미 있는 곳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활용화 방안

- 제주목관아 전시관의 건립 : 제주목관아의 발굴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시
대의 제주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의 전시 및 체
험공간을 만들어 문화관광 자원화한다.

참고 자료

강창화, 「삼도동의 유적과 유물」, 『삼도1동지』, 삼도1동지편찬위원회,
2006.

김동전, 「제주목관아지」, 『耽羅 歴史와 文化』,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1998.

제주대학교박물관, 『濟州牧官衙址』, 1998.

| 집필 강 창 화

관덕정

선정 취지

관덕정(觀德亭)은 세종 30년(1448) 제주안무사 신숙청이 병사들의 훈령청으로 창건한 건물이며 조선시대에는 ‘호남제일정(湖南第一亭)’으로 명명되었다. 관덕정은 조선시대 이래 제주를 상징하는 건조물의 하나로 손색이 없다. 1963년 보물 제322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정의와 개설

관덕정은 제주시 삼도 2동 98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정자 건물이다. ‘관덕’은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쌓는 것’이라고 적힌 『예기』에서 취한 것으로, 활쏘기의 의식을 통해서 덕행을 쌓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창건 당시의 관덕정 현판은 안평대군의 글씨였으나 불에 타 없어지고 그 뒤에는 선조 때 우의정을 지낸 이산해가 쓴 액자가 걸려 있었다고 한다.

‘탐라형승(耽羅形勝)’의 편액은 김영수가 제주목사 재임 당시인 정조 4년(1780)에 쓴 것이며, ‘호남제일정’ 편액은 고종 19년(1882) 제주방어사 박선양이 관덕정을 중수하면서 쓴 글이다.

관덕정의 중수는 성종 11년(1480) 제주목사 양찬 이 후, 명종 14년(1559)에 제주목사 이영, 숙종 16년(1690)에 제주목사 이우항, 영조 29년(1753)에 제주목사 김몽규, 정조 2년(1778)에 제주목사 황최언, 순조 33년(1833)에 제주목사 한응호, 철종 2년(1851)에 제주목사 이현공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후 일제



사진 고기호

관덕정은 야외 행사장으로도 사랑 받고 있다

강점기인 1924년에 일본인 도사(島司) 전전선차(前田善次)가 중수하면서 15척이나 되는 처마를 2척이나 줄여서 보수하고 주위에 문을 달게 되면서 관덕정의 위용은 반감되었다. 해방 후인 1969년에 건물을 보강 수리하였으며, 2006년 8월에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지붕처마를 복구하기에 이르면서 옛 모습을 어느 정도 찾기에 이르렀다. 관덕정 벽면에는 상산사호(商山四皓), 취과양주굴만교(醉過揚州橋滿橋), 적벽대첩도(赤壁大捷圖), 홍문연도(鴻門宴圖), 진중서성탄금도(陣中西城彈琴圖), 대수렵도(大狩獵圖), 십장생도(十長生圖), 삼고초려도(三顧草廬圖) 등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관덕정은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팔작지붕으로 비바람이 세차게 들이치는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마가 길게 건축된 것이 특징이다. 관덕정 앞에는 조선시대 큰 광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군사들의 훈련 및 무예를 시험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상징의 의미

관덕정은 제주관아의 대표적인 기와건축물로 제주관아 건축 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다. 관덕정에서는 관리에 대한 고과점수를 부여하거나, 과거시험 장소

및 제주목의 큰 행사 때마다 제주목사가 좌정하는 권위의 상징으로 자리했다. 관덕정 앞의 큰 광장은 고려말 이후 계속된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전 도민이 군사화 해야 하는 현실에서 무예를 시험하는 장소로 출발하였지만, 조선 시대 제주목관아의 중심센터로써 제주도의 정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역이었다.

조선후기에 민란이 발생하면서 민란의 장두들이 악질 향리를 처벌하거나, 민란에 실패한 장두들이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는 등 제주사람들의 한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1900년대 전후해서는 오일장이 자리하기도 했고, 해방 후에는 1947년 3·1절 발포사건이 발생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제주시 자료

이승만 대통령 내도시 관덕정에 운집한 도민들

활용화 방안

- 관덕정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기와건축물로 그 유형이 잘 남아 있다. 17세기 초의 모습은 『탐라순력도』에 나타나 있으며, 19세기 말의 모습은 사진 자료로 남아 있다. 따라서 제주도 기와건축물 원형의 상징으로 잘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관덕정의 모형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관덕정의 역사성 및 문화성을 알리고, 제주기와 건축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 자료

이형상, 『탐라순력도』, 1702~1703.
제주시, 『관덕정 : 실측조사보고서』, 1995.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시의 옛터』, 1996.

| 집필 김 동 전

항파두리항몽유적지

선정 취지

항파두리 항몽유적지는 우리나라 대외 항쟁사에서 가장 치열하고 장기적으로 전개됐던 고려 대몽항쟁의 마지막 항전지이다. 또 제주가 한때 몽골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되는 일이 벌어진 역사적 공간이기도 하다.

정의와 개설

2,00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술한 외족(外族)의 침략을 받아 왔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침략을 받았고 끈질긴 항쟁을 벌였던 것이 40여 년 간 지속된 고려의 대몽항전(對蒙抗戰)이다. 한편 삼별초는 대몽항전의 주축세력이면서 마지막 항몽세력이었다. 삼별초는 원종 12년(1271) 항몽거점인 진도가 여·몽연합군에 의해 함락되자 그 잔여세력이 제주로 들어와 웅거했다. 이들은 제주에 들어와 여러 곳에 방어시설을 쌓았다. 이들 중 제주 삼별초가 항몽활동의 주요거점으로 삼고, 원종 14년(1273) 여·몽연합군의 공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곳이 항파두리성이다.

항파두리성은 그 일부가 1977년부터 보수·복원되었고, 성내에 항몽순의비(抗蒙殉義碑)도 세워졌다. 1997년에는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라는 이름으로 국가사적 제396호로 지정, 고시되었다.

‘항파두리’의 연원에 대해서는 ‘항(독)에 죽 돌린 가장자리’에서 유래하며, 항파두리성은 항의 가장자리와 같이 타원형으로 쌓아졌던 데서 이름이 붙여졌

다는 견해가 있다. 또 여·몽연합군의 장군과 관련해 해석하기도 한다. 몽골은 공을 세운 장군에게 ‘큰 용사’라는 뜻의 ‘바투’ 호칭을 주었는데, 여·몽연합군의 몽골측 장군 홍다구(洪茶丘)도 ‘홍바투’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파두리성도 ‘홍바투’의 전공을 기리는 의미로 칭하게 된 ‘홍바투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다. 이밖에도 항파두리의 연원에 대한 매우 다양한 견해가 있다.

상징의 의미

고려의 대몽항쟁은 고종 18년(1231) 몽골의 침략으로 시작되었다가 제주에서 항파두리성의 함락과 함께, 제주 삼별초가 최후를 맞이함으로써 끝났다. 이



사진 오희삼

복원한 항파두리 토성 일부

후 몽골은 제주를 자신의 영토로 삼았다. 몽골은 제주가 남송(南宋)과 일본을 잇는 바닷길의 요충지여서 양국 정벌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려고 일찍이 눈독을 들여왔다. 그러던 중 끝까지 저항한 삼별초를 제주에서 평정한 것을 계기로 삼아 제주를 직할령으로 삼았다. 이때부터 제주는 100여 년 동안 몽골족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항파두리항몽유적지는 이민족의 침략에 결사항전함으로써 민족주체성과 자존을 드높였던 곳으로 상징되고 있다. 제주가 100여 년 간 고려와 몽골에 이중 귀속되는 미증유의 처지에 빠져든 계기가 됐던 일이 벌어진 유적지이기도 하다.



항파두리성을 쌓는데 동원된 제주도민들 (기록화)

활용화 방안

- 항파두리 항몽유적지는 제주가 한국사, 더 나아가 세계사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음을 말해주는 존재이다. 또 제주 경관과 문화의 특이성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려의 대몽항전을 세계사적 시각에서도 조명함과 아울러, 제주가 지닌 인문·자연환경의 특이성을 찾아볼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춘 활용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항파두리성과 그 주변 유적에 대해 종합적 학술조사를 거친 후, 당시 유적을 재현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보순행의 동선을 마련하고, 거기에 얹힌 역사·문화적 사실을 전해주는 자료집을 발행한다. 이로써 제주역사와 문화 및 경관을 아울러 이해하는 문화기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은 가장 중심이 되었던 건물을 복원한 뒤, 출토 유물의 전시는 물론이고, 고려의 대몽항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의 정보를 제공하는 고려시대 항몽전시관으로 삼아 산 교육장의 중심센터로 활용한다.

참고 자료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북제주군·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및 종합기본정비계획』, 2002.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 집필 김 일 우

환해장성

선정 취지

환해장성은 역사적으로 잦았던 외침을 막기 위해 제주사람들이 설치한 관방(關防)시설로, 제주도의 해안가에서 파도에 씻긴 알들로 쌓여져 있어 제주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역사유적이다.

정의와 개설

환해장성은 해안을 전체적으로 둘러친 3백리 장성으로 '제주의 만리장성'으로도 일컫는다. 일명 '고장성(古長城)', '장성(長城)' 이라고도 한다. 환해장성이라는 명칭은 김석익(金錫翼)이 1918년에 편찬한 『탐라기년(耽羅紀年)』에 처음 나온다. 환해장성의 축조는 고려 때 삼별초가 진도를 거점삼아 대몽항쟁을 벌일 때 시작되었다.

고려의 개경 정부는 진도 삼별초의 제주 점령을 저지코자 군사를 보내 방어시설을 설치케 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환해장성이다. 원종 11년(1270) 진도 삼별초가 들어와 개경 정부의 관군을 물리쳐 제주를 장악했다. 이후 제주 삼별초도 환해장성을 계속 쌓았다. 이후 환해장성의 용도도 여몽(麗蒙)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때의 환해장성은 해안선을 따라 연속해 쌓은 것이 아니라 적이 상륙하기 손쉬운 곳을 골라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환해장성은 계속 보수, 혹은 신축되었다. 이때는 왜구와 이양선(異樣船)의 출몰이 잦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환해장성의 흔적이 제주도내 19개 리(里) 해안가 지대에서 남아 있다. 특히 평대리 환해장성은 단속적이기는 하나, 대략 1km에 걸쳐 흔적이 남아 있다. 이는 잔존의 환해장성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판단된다. 환해장성은 자연 석 현무암이 파도에 씻기고 닳은 둥글둥글한 돌을 이용하여 쌓아놓았다. 이 때문에 외관상 해안가 밭이나 경계구분의 돌담, 혹은 바닷물 범람 방지의 돌담 등과 구분하기 쉽지 않다. 지금까지 제주도 곳곳에 남아 있는 환해장성의 높이는 대략 2m 안팎이나 함덕리처럼 최고 4m나 되는 곳도 있다. 형태는 성 밖은 경사지고 성안은 높은 것, 또는 성 밖은 경사지고 성안은 평탄한 것 등 다양하다.

상징의 의미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대륙 및 일본 지역 등을 잇는 중간적 지점이고, 멀리 동남아 지역으로도 열려 있는 해상에 위치



해안에 남아있는 구좌읍 하도리의 환해장성 / 사진 오희삼



사진 오희삼

일부 복원된 성산을 온평리 환해장성

하여 외침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았다. 이에 제주사람들은 외적의 침입을 막고자 성곽과 봉수 및 연대 등과 같은 관방시설을 상당수 축조했다. 환해장성은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방어 시설일 뿐 아니라 가장 장기적으로 축조된 것이다. 또 환해장성을 쌓았던 현무암은 제주가 화산섬이어서 도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이다. 그러므로 환해장성은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잦은 외침에 시달렸던 제주사람들이 그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역사적 산물임과 아울러, ‘돌의 고장’과 ‘돌문화’의 산실임을 드러낸 상징으로도 손색이 없다.

활용화 방안

- 체험의 문화관광 프로그램 : 일본의 경우도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제주에 마지막 방어선을 치기 위해 각종 군사시설을 만들어 놓았다. 이들 군사시설도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와 맞물려 들어섰다. 이에 10여 곳 잔존 환해장성과 아울러, 각 처의 일제군사시설을 정비해 연속적으로 묶은 뒤, 이를 찾아보는 체험문화관광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환해장

성도 ‘돌담’ · ‘돌하르방’ · ‘동자석’ · ‘산담’ 등과 같이, 제주가 ‘돌의 고장’ 과 ‘돌문화’ 의 산실임을 드러내는 문화적 인자(因子)의 하나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잔존 환해장성을 복원·정비한 뒤, 이를 연계해 보여주는 순행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로써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 및 화산섬 등과 관련한 제주역사및 문화와 경관 등의 정체성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그것을 문화자원화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高麗史』

「金文正公墓誌」

『新增東國輿地勝覽』

김석익, 『耽羅紀年』, 1918.

강창언, 「제주도의 환해장성 연구」, 『탐라문화』 11,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1.

| 집필 김 일 우

원당사지오층석탑

선정취지

원당사지오층석탑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세계 유일의 불탑이다. 몽골의 제주 지배라는 역사적 사연과 아울러, 불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기도 전해주는 등 제주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다.

정의와 개설

원당사지오층석탑은 제주시 삼양동 원당사(元堂寺)라는 사찰에 있었다는 데서 이름이 붙여졌다. 소재지는 원당오름 기슭에 해당한다. 구전에 의하면, 원당사는 몽골에 공녀(貢女)로 끌려갔으나 황후 자리까지 오른 고려 출신 기씨(奇氏)에 의해 세워졌다고 한다. 즉 기황후가 태자가 없어 고민하던 중 북두칠성의 명맥이 비치는 삼첩칠봉(三疊七峰)에 절을 세워 불공을 드려야 한다는 승려의 비법을 받아 천하를 두루 살피다가 원당봉을 적지로 보고 이곳에 빌어서 황태자를 얻은 후, 그에 대한 감사로 원당사를 창건토록 했다는 것이다.

원당사터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고려시대 건물지 및 도자기편 등이 확인됐다. 가람배치도 고려의 불교 양식을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옥신과 옥개도 형태가 보기 드문 것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고려후기 석탑의 축조양식을 연상케 한다.

원당사와 원당사지오층석탑이 기황후와 관련을 맺어 세워졌다는 구전은 과장되었다하더라도, 그 시기는 몽골의 제주지배기였고 창건의 주도 집단은 몽골



사진 현명자

검은색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오층석탑

족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법화사와 수정사의 중창을 고려한다면 몽골의 제주지배 때 불교가 제주사회에 널리 유포되어 확산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상징의 의미

원당사지오층석탑은 제주 유일의 불탑이자 보물 제1187호로 지정, 고시되었다는 점에서 제주문화재를 대표하는 표상으로 손색이 없다. 이와 함께 제주 역사와 문화 및 경관과 관련된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원당사지오층석탑의 재료인 현무암은 화산섬 제주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돌이다. 그만큼 원당사지오층석탑은 제주의 토착성을 강하게 담은 문화유산이다. 또 제주문화는 제주사람들이 외부문화를 수용하더라도, 자신이 처한 자연환경과 조응하며 수용·정착화시켰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제주역사는 제주가 지닌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해 외부세력이 들어와 커다란 격변을 겪은 것은 다른 지방 역사와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의 구체적 실상을 전해주는 예가 바로 원당사지오층석탑이다. 즉 인류역사상 가장 커다란 영역을 차지했던 몽골족이 제주에 들어와 100여 년 동안 지배했던 역사적 사연을 원당사지오층석탑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또 불교가 13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본격 수용되어 많은 제주사람들이 신봉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활용화 방안

- 토산물이나 기념품 등의 문양으로 활용 : 원당사지 오층석탑은 제주역사 및 문화와 경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 참신하고 고급스런 디자인으로 문양화하여 기념품에 활용할 만하다.
- 몽골 관련 역사유적지 관광코스 개발 : 제주에는 삼별초 관련 항몽유적지, 법화사지와 수정사지, 서귀포시 법환리 포구 주변의 지명과 그 앞바

다 범섬 등과 같이, 몽골의 제주지배와 관련된 유적이 상당수 있다. 이들은 몽골의 제주지배에 관한 전말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이에 원당사지오층석탑을 비롯해 이들 유적을 유기적이고 순차적으로 연계해 소개하는 자료집을 만든다.

- 제주와 몽골의 교류라는 테마의 답사코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와 맞물려 역사적으로 생성된 환해장성, 또한 일제강점기의 각종 군사시설과도 연계해 묶을 수 있다. 이로써 보다 넓은 제주지역을 찾아다니며, 제주역사와 문화 및 경관의 정체성을 접할 수 있다. 이는 제주역사와 문화 및 생태가 맞물려 이루어진 문화관광코스의 창출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제주시·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불탑사(옛 원당사지) 오층석탑·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원당사지」, 『제주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 집필 김 일 우

제주4·3사건

선정 취지

제주도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인명 및 물적 피해를 가져온 사건이며, 제주사람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집단적인 공동체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또 제주도의 특수한 사건을 넘어서 세계적으로는 냉전체제, 한국현대사에서는 분단체제의 형성과 직결되는 보편성을 갖는 사건이다. 제주4·3사건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비극적인 과거를 청산하고 화해와 상생의 기초를 이뤄내, 21세기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므로 선정하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



사건 현장

4·3기록화를 보고있는 관람객



그림 강요배

4·3기록화 「천명(天鳴)」

정의와 개설

‘4·3’은 1948년 4월 3일 새벽 두 시 한라산의 무장대가 제주도내 경찰지서 및 우익단체원을 겨냥해 무장 습격한 날을 기억하여 붙인 사건 명칭이다. 또한 ‘4·3’은 4월 3일을 전후하여 장구한 시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일어난 총체적 사건을 가리키는 역사적 용어이다. 때문에 ‘4·3’의 뒤에 따라와야 할 사건의 성격을 나타내는 후속 명칭은 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건’ ‘사태’, ‘폭동’, ‘반란’, ‘소요’, ‘봉기’, ‘항쟁’, ‘양민학살’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이는 미군정기로부터 신생국가 수립 과정에서 보이는 정치사회적 혼란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4월 3일 당일 무장대의 거사 이전에 1947년 3·1사건 이후의 과정

이 내재해 있고, 4월 3일 이후로도 1954년 한라산의 금족령(禁足令)이 해제될 때까지 오랜 기간 한라산의 무장대는 존속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4·3이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장기지속성은 4·3의 성격을 매우 복합·다층적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2000년 대한민국 정부가 4·3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할 현재에 이르기까지 4·3은 ‘4·3사건’으로 통칭되고 있다. 물론 각 개인·계층·집단의 당파성과 인식의 차이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역사적 성격 규명이 진전된다면 사회문화적 합의와 공적 인식 과정을 거쳐 ‘사건’이 다른 명칭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상징의 의미

4·3은 제주도민의 공동체적 특수성이 저변에 깔려 있는 사건이다.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공동체적 연대감, 어려운 자연 조건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함 등으로 해방공간 한반도에서 가장 이상적인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이러한 공동체성이 친일파와 우익청년단에 의해 파괴되어 나가는 지점에서 4·3이 발발하였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그 공동체가 절멸되었다는 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사람 대다수는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모른 채, 토벌대의 대학살이 한 공동체의 붕괴와 멸종으로 보였을 때, 오직 공동체를 지키려는 일념으로 거기에 저항했다. 이런 점에서 4·3은 제주도의 특수성과 제주사람들의 자존심이 담긴 역사적 사건으로 그 당위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민중사적 역사인식의 본보기로 자리잡아야 한다.

20세기 냉전체제하에서 제주사람들은 ‘4·3’이라는 작은 저항을 시도하다가 거대한 힘에 의한 압살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무엇보다도 4·3은 엄청난 민간인학살로 점철된 인권 유린의 사태임을 주목하여야 한다. 4·3은 단순한 인명 살상이 아니라 한 지역의 인간집단을 학살하는 ‘제노사이드(genocide)’에 해당된다(2만 5천~3만 명의 희생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자연적 저항이 폭력에 의해 꺾이는 경험을 한 제주사

람들은 인권과 평화에 대한 갈망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한 채 20세기의 절반을 살아왔다. 21세기 제주는 세계적인 평화의 섬으로 떠오르고 있다. 4·3은 이제 비극적 사건이 아니라 제주사람들의 평화와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적 근거가 되고 있다.

활용화 방안

- 4·3유적지의 보존·정비를 통한 기념·교육·교훈의 공간화.
- 4·3평화기념관을 4·3의 진실 알리기와 후세대의 체험 공간, 관광자원화로 활용.
- 4·3의 정신과 가치를 보편화하기 위해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
-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한 과거사 청산의 모범적 사례로서 교과서 서술 등을 통해 홍보, 전국화 시킴.

참고 자료

-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도서출판 각, 2008.
- 양정심, 『제주4·3항쟁』, 선인, 2008.
-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①-⑤, 전예원, 1994~1998.
- 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II, 2003~2004.
- 제주4·3진상규명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1-11, 2001~2004.

| 집필 박 찬 식

유배의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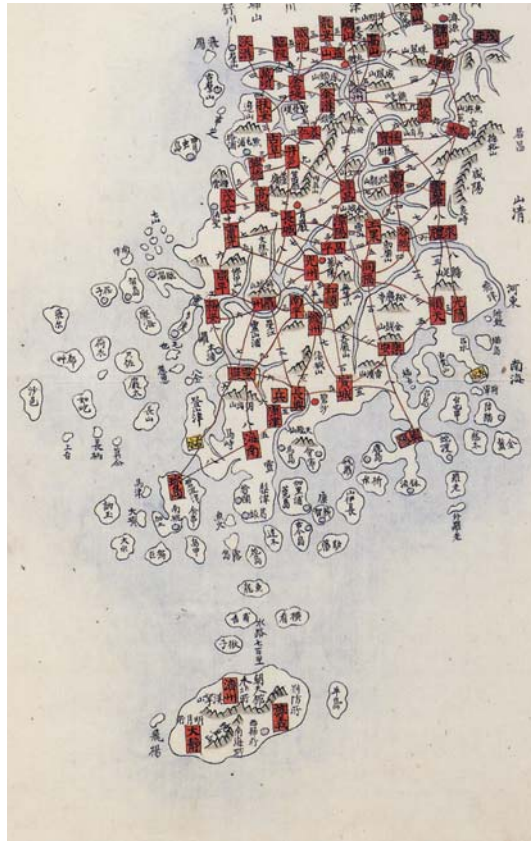
선정 취지

조선 중기 이후 당쟁이 격화되면서 변경이나 내륙으로의 유배 대신, 도배(島配)가 격증하면서 제주도는 당대 일급의 유배지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유명한 선비들이 대거 유배되면서 독특한 제주유배문화가 형성되었다. 제주도의



사진 오희삼

날씨가 좋은 날은 수평선 너머로 제주 밖의 섬들이 신기루처럼 나타난다



제주와 육지의 노정이 표시된
『여지도(輿地圖)』중 「전라도」

지정학적 특징과 당쟁이라는 조선조의 정치적 상황이 결부되어 만들어진 유배는 제주도와 제주문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상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의와 개설

유배란 중죄를 범한 자에게 사형까지는 과하지 않고 원격지로 보내어 종신토록 다시 귀환치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이러한 유배형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수

나라와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시대에는 당률을 모방하여 사형·유형·도형·장형·태형 등 5형을 확정하였다. 이때 유형의 기준은 2천리·2천5백리·3천리의 3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와 같이 5형을 택해서 3등급으로 구분하였고 반드시 장형 100대를 부과하였다.

유배형에는 천사(遷徙)·부처(付處)·안치(安置) 등이 있다. 천사는 죄인을 고향에서 먼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형벌로 격리의 목적이 있다. 부처는 유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유배지 현관(顯官)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 조치를 맡긴 형벌이다.

안치에는 본향안치·절도안치·위리안치가 있다. 본향안치란 죄질이 가벼

운 사람을 고향에 유폐시키는 형벌이다. 절도안치는 중죄인을 섬에 격리시키는 형벌이다. 그래서 『대전통편』에는 제주3읍의 경우 죄명이 특히 중한 자 이외에 유배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위리안치는 가시울타리를 치고 죄인을 유폐시키는 중연금 조치이다. 이 가운데 제주도는 절도안치와 위리안치가 동시에 시행된 조선시대 최악의 유배지였다. 제주도 유배인의 수형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석방은 오로지 군왕의 관용과 국정환국에 따른 사면이나 양이(量移)가 없는 한 유배생활을 종신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조선조 유배의 대부분은 당쟁이 그 원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배와 조선 지식인의 정치적 수난과는 대응관계였다. 조선 초기만 해도 유배는 통상 갑산이나 북청 등에 원배로 그쳤다. 서울 근교의 교동은 왕족들의 유배지였으며 그 밖에는 충주 등 이른바 선지(善地)에 유배가 고작이었다. 그러다가 조선 중기 이후 당쟁이 격화되면서 변경이나 내륙으로의 유배 대신 도배(島配)가 격증하였고, 특히 제주도를 비롯한 다도해의 여러 섬들이 일급의 유배지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이 섬에는 당대의 유명한 선비들이 대거 유배되는데 그 수에 있어서 제주도는 단연 압도적이었다.

상징의 의미

당쟁이 격화되면서 유배는 조선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낮은 일이 아니었다. 어떤 의미에서 유배 체험이 없는 지식인은 지식인의 경력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비들에게 있어 제주도 유배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나 규범과도 맞물려 있어 한편으로 염치와 명분의 징표가 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배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낮설어 하거나 개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제주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제주유배문화라는 독특한 문화양식도 생겨날 수 있었다.

활용화 방안

- 제주유배문화원형에 기반한 Digital Storytelling 개발 : 제주유배문화원형을 이용한 드라마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 게임 시나리오 등 개발.
- 제주유배문화를 활용한 Story Town 개발 :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배유적지들을 활용하여 대정읍을 Story Town으로 재개발.
- 제주유배문화관 설립 : 제주유배문화를 한 곳에서 조명할 수 있는 제주유배문화관을 대정에 설립.
- 제주유배문화해설사 양성 : 제주유배문화를 전문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특화된 해설사 양성.
- 제주유배관광코스개발 : 제주유배유적지 및 남해안 유배유적지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참고 자료

- 양순필, 『제주유배문학연구』, 제주문화, 1992.
- 양진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문학과지성사, 1999.
- 양진건, 『제주유배문학자료집 I』,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 집필 양진건

하멜의 표도

선정 취지

하멜의 제주 표도(漂渡)는 제주와 서양 또는 제주를 매개로 조선과 서양이 만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하멜 표류기』는 서양인들에게 미지의 세계로 알려진 조선을 비롯한 제주를 서양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즉 제주가 서양세계에 ‘퀄파트(Quelpart)’라고 알려진 것은 전적으로 하멜이 편찬한 이 표류기의 영향이다.

정의와 개설

헨드릭 하멜[Hamel, Hendrik]은 네덜란드 호르쿰 출신으로 제주에 표착했던 스페르웨르[Sperwer]호 선박의 서기였으며, 표도 당시의 나이는 36세였다. 하멜의 제주표도는 효종 4년(1653) 음력 7월 24일(양력 8월 15일)이며, 표도 지역은 『지영록(知瀛錄)』(李益泰)의 「서양국표인기(西洋國漂人記)」에는 대정현 차귀진 대야수(大也水) 연변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멜 일행 64명이 탄 배가 대정현 즉, 차귀진 관할의 대야수 연변에 표착했는데, 승선자 중에 의사자 26명, 병사자 2명, 생존자는 36명이었다. 통역관 박연이 표류자들을 문정한 결과 이들은 모두 네덜란드 사람이었고 그들이 승선했던 선박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 무역선이었다. 사탕·후추·목향 등의 물건으로 도안도(道安島, 대만) 등을 거쳐, 목향으로 왜화(倭貨)를 사려고 일본으로 가다가 표류하였다.

하멜 일행은 제주목사 이원진(李元鎭)의 심문을 받고 이듬해 6월 서울로 압



하멜이 승선했던 배와 가장 유사한 듀프칸호

송되어 훈련도감에 편입되었으며, 1656년 강진(康津)의 전라병영(全羅兵營), 현종 4년(1663) 여수(麗水)의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에 배치되어 잡역에 종사하다가 현종 7년(1666) 9월 7명의 동료와 함께 탈출하여 일본을 거쳐 1668년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그는 그해 표류 당시 소속되었던 동인도회사에 조선에 억류되었던 동안에 받을 임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일종의 《하멜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난선제주도난파기》(蘭船濟州島難破記) Relation du Naufrage d'un Vaisseau Hollandois》 및 부록 《조선국기 Description du Royaume de Coree》, 즉 『하멜표류기』(漂流記)로 알려진 기행문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그의 조선 억류생활 약 14년 간의 기록으로 한국의 지리·풍속·정치·군사·교육·교역 등을 유럽에 소개한 최초의 문헌이다.

1668년 암스테르담(Amsterdam)과 로테르담(Rotterdam)에서 처음 출판되어 나오기 시작한 『하멜표류기』는 출판업자들의 상업성에 따라 원본과는 상이한 부분들이 첨가되면서 여러 종류가 출판되었다. 어떻든 하멜표류기로 17세기 이후, 제주도는 ‘퀄파트(Quelpart)’로 서양에 널리 알려졌다. 하멜이 제주도에 표착하였을 당시 표류한 지점을 위도계로 측정해 보니 북위 33도 32분

이었고, 이 곳이 그들이 갖고 있던 해도에 표기된 켈파트임을 알게 되었다. ‘켈파트’가 해도에 표기되기 시작한 것은 하멜이 제주에 표류하기전인, 1642년경 네덜란드의 갤리선 켈파트 드 브락(t Galjodt t Quelpaert de Brack)이라는 선박이 일본과의 무역을 위해 항해를 하다가 하나의 섬[제주도]을 발견하고, 천측(天測)하여 그 섬을 ‘켈파트(Quelpart)’라 명명하고, 이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보고하면서였다. 이때부터 제주도는 ‘켈파트호’가 발견했다는 의미에서 ‘켈파트’라 불리어진 것이다. 따라서 하멜일행은 1653년 8월 18일 일등항해사의 천측에 의해 그들이 도착한 곳이 켈파트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후 하멜보고서의 출간으로 제주도는 서양인들에게 켈파트(Quelpart)로 더욱 알려지게 된 것이다.



하멜일행의 표도지로 추정되는 고산리 해안(좌)과 하멜표류기 원본 / 사진 오희삼·국립제주박물관

상징의 의미

하멜의 제주 표도는 제주를 서양세계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서양인에게 미지의 세계였던 조선을 알리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조선이 서양과 만날 수 있는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은 매우 높다. 17세기 조선은 제주를 매개로 하여 서양과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서양에 제주도가 쿨파트로 알려지게 되는 직접적 계기를 하멜은 표류의 전과정을 담은 『하멜표류기』를 남겼다.

활용화 방안

- 하멜의 표도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활용, 양국간의 우호증진 및 교류,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특히, 제주의 국제화 요소로 활용.
- 표류문화전시관 설립: 스페르웨르호를 비롯한 네덜란드 선박, 하멜, 박연 등 제주의 표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전시관 및 문화관광상품 개발.

참고 자료

김동전, 「하멜의 제주표착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현재성」, 『동아시아연구논총』 14호,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04.
국립제주박물관 편, 『항해와 표류의 역사』, 솔, 2003.

| 집필 김 동 전

김만덕

선정 취지

조선시대 변방 제주섬의 여인으로 돈을 벌어 굶주린 제주사람들을 위해 재산을 기부한 제주역사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또 출륙금지령에 묶여 있던 제주의 폐쇄적인 정서를 극복하고 서울로 나아가 임금을 뵙고 금강산을 구경한 제주여성의 당당함을 보여준 상징적인 인물로, 21세기 한국의 주체적 여성 상징이자 새로운 여성 CEO의 역사적인 인물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의와 개설

김만덕(1739~1812)은 아버지 김응렬과 어머니 고씨 사이에서 2남 1녀 중 외동딸로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에서 태어났다. 만덕은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지혜로워 주위의 귀여움을 받았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11살에 제주목 관아의 기생이 되었다. 기녀가 된 만덕은 양민으로 환원시켜 주면 불쌍한 사람을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20세가 되던 해에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났다. 관기를 그만둔 뒤 그녀는 돈을 벌어 세상에 도움을 주겠다는 일념 아래 산지(山地)에 객주집을 차리고, 제주의 특산물인 말총·미역·전복·양태·우황·진주 등을 서울 등지에 팔거나 기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반층 부녀자의 옷감·장신구·화장품 등을 염가로 공급하고 천 냥 부자가 되었다.

1790년부터 1794년까지 5년간 제주에 흉년이 들어 제주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자 그녀는 1천금을 내놓아 배를 마련하고 육지로 건너가 연해에서 곡물



만덕기념관에 걸려 있는 김만덕 초상

을 사들여 구호곡으로 쓰게 하였다. 이러한 김만덕의 선행이 조정에 알려지자 1796년 정조(正祖)는 그녀를 궁궐로 불러들였다. 이때 평민으로서는 예궐할 수 없으므로 왕은 김만덕에게 내의원의 의녀반수(醫女班首)의 직함을 내렸다. 이어서 영의정 채제공과 선혜청의 배려로 조선의 명산인 금강산을 유람하였다.

1797년 채제공(蔡濟恭)에 의해 김만덕의 전기가 씌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박제가(朴齊家) · 정약용(丁若鏞) · 이가환(李家煥) 등 당대의 쟁쟁한 실학자들이 김만덕의 선행을 기리는 한시를 남기기도 했다.

의녀 김만덕을 기리기 위하여 제주시 사라봉 모충사 기슭에는 만덕을 칭송하는 묘탑, 기념관, 옛 무덤에 세웠던 비석이 있으며, 탐라문화제 기간에는 만덕제가 열려 의녀 김만덕의 근면 · 자주 · 박애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상징의 의미

김만덕은 출륙금지령이 내려져 있던 변방 제주섬에 사는 천민 신분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농·공·상 중 말업(末業)으로 천시되던 상업을 통해서 거부(巨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재산을 환원함으로써 나라도 하기 힘든 구휼활동을 했다.

그녀는 변방·여성·천민·상업이라는 최말단의 조건에서 국가·남성·양반·관료도 구하기 힘든 구휼활동을 했다. 또 출륙금지령 하에서 제주여성으로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육지 나들이뿐만 아니라 임금 알현, 금강산 구경까지 이루어낸 최고 경지의 인간사를 경험했다.



사진 서현열

제주시 사라봉 모충사내 김만덕묘탑(좌)과 묘비



추사 김정화가 김만덕의 덕행을 듣고 쓴 「은광연세」

활용화 방안

-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김만덕 축제의 개발.
- 천섬 쌓기 사업과 만덕제를 결합한 문화축제로 전환.
- 만덕 드라마의 방영.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재인 만덕묘 인근에 만덕기념관 신축.
- 만덕의 콘텐츠를 활용한 만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상품 개발.
- 만덕을 통한 21세기 여성상징 인물 개발.

참고 자료

김만덕기념사업회, 『恩光衍世』(김만덕 자료총서 I), 2007.
 김만덕기념사업회,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보고서』, 제주도, 2004.
 김봉옥, 『모충사기』, 제주시, 1987.
 정창권,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카리』, 푸른숲, 2006.
 김만덕기념사업회 홈페이지 (<http://www.manduk.org>)

| 집필 박 찬 식

봉수와 연대

선정 취지

봉수와 연대는 높은 산이나 해안 구릉에 설치하여 불이나 연기를 피워 위급한 소식을 전하는 통신제도로, 국가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군사용 통신수단이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왜적의 침입이 빈번했던 까닭에 일찍부터 봉수와 연대가 설치됐다. 봉수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오름에, 연대는 시야가 탁 트여 수평선까지 훤히 내려다보이는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지금은 제주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지만, 당시는 잦은 왜적의 침입에 고심했던 제주인의 애환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정의와 개설

제주도의 봉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말 『동사강목(東史綱目)』에 나타나고 있다. 그 후 조선시대 세종 21년(1439) 제주도안무사(濟州都安撫使) 한승순(韓承舜)이 3읍성 9진성을 정비하면서 제주목 10개소, 정의현 7개소, 대정현 5개소 등 모두 22개소에 봉수를 설치하였다. 이후 봉수는 계속 증설·정비되었다. 『신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제주목 8개소, 정의현 10개소, 대정현 5개소 등 모두 23개소의 봉수가 기록되어 있으며, 17세기에 편찬된 『탐라지(耽羅志)』에는 25개소가 나타나 있다.

제주목에 소속된 봉수는 10개소로 사라·월당·도원·수산·서산·입산·



사진 서현영

대정읍 일과리의 서림연대

왕가·고내·도내·만조이고, 정의현에 소속된 봉수는 10개소로 남산·독자·달산·토산·수산·성산·지미·자배·호촌·삼매양이다. 그리고 대정현에 소속된 봉수는 5개소로 구산·호산·저별·당산·모슬이다.

연대 설치는 18세기 후반에 편찬된 『제주읍지(濟州邑誌)』에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제주지역에는 25봉수와 38연대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또 같은 시기에 편찬된 『탐라방영총람(耽羅防營摠覽)』에는 정의현 관내에 수산봉수(水山烽燧)와 종달연대(終達煙臺)가 폐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세기 편찬된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에는 제주목의 함덕·좌가·귀덕·마두, 정의현의 소마로·종달, 대정현의 모슬·마희천·별로천 등 9곳이 폐쇄되어 29연대만 기록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연대는 36개소 중 해안에서 100m미만인 곳이 58% 정도 차지한다. 이와 같이 연대는 해안 구릉에 위치하여 적의 동태를 자세히 살피기 편



사진 서현필

성산읍에 있는 독자봉수

리한 곳에 축조되었다. 각각의 연대는 서로 상응하는 연대에 연락을 취하는 동시에 가까운 봉수에도 연락을 취하여 최종에는 중심 봉수의 기능을 하는 사라봉수를 통하여 제주목 관아에 급보를 전했다.

상징의 의미

오름 정상부에 설치된 봉수와 해안 구릉에 설치된 연대는 3읍 9진성과 더불어 제주를 지켰던 방어시설의 골격이다. 또한 옛 사람들이 국난극복을 위해 이용한 가장 빠른 통신시설이기도 하다.

제주 전역에 산재해 있는 연대와 봉수는 당시 왜적의 움직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설치되었다.

이처럼 봉수와 연대는 왜구의 침탈에 의해 신음과 고뇌 속에서 살았던 옛 제주사람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치했던 국난극복의 역사적 현장이다. 따라서 봉수와 연대는 제주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경관자원인 동시에 제주사람들의 겪어온 고통과 역사를 체온으로 느낄 수 있는 문화자원인 것이다.

활용화 방안

- 3읍 9진성의 활용방안과 연계한 체험답사 프로그램 개발.
- 체전, 들불축제, 새해맞이 등의 각종 행사 및 축제를 전도에 알리는 상징 체계로 활용.
- 환해장성과 연계한 방어유적 체험답사 프로그램 개발.

참고 자료

김명철, 『朝鮮時代 濟州島 關防施設의 研究- 邑城, 鎭城과 烽燧, 煙臺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명철, 「朝鮮時代 濟州島 關防施設의 研究- 3邑城과 9鎭城을 중심으로」, 『濟州島史研究』9, 濟州島史研究會, 2000.

김봉옥·신석하, 『濟州의 防禦遺跡』, 제주도, 1996.

| 집필 강 창 화

오현단

선정 취지

‘오현단’은 굴림서원(橋林書院)에 봉안되었던 다섯 명의 유현을 배향하던 제단을 지칭한다. 유현배향이 갖는 의미는 시대정신의 교육적 표현을 구체적인 인격 속에서 찾고자 했었다는 데 있다. 이는 곧 ‘서원에 가면 엄연히 그 사람을 보는 듯(入其堂儼然若見其人)’ 하여 후세의 학자로 하여금 그들처럼 되도록 감발흥기(感發興起)케 하려는 교육적 의미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그대로 남아있는 오현단은 선정의 가치가 충분하다.

정의와 개설

굴림서원은 선조 11년(1578)에 조인후 판관이 기묘사화로 유배와 사사된 김정(金淨)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묘(廟)를 세운 데서 비롯되었다. 당대의 명문장가인 임제가 절도사인 부친을 뵈고자 내도하였다가 조인후의 부탁으로 기(記)를 썼고 효종 10년(1659)에 이회 목사가 제주유림 김진용의 건의를 받아들여 장수당을 건립하였다. 현종 6년(1665)에 최진남 판관이 김정의 묘를 장수당 남쪽으로 옮기어 이를 사(祠)로 하고 장수당을 재(齋)로 하여 굴림서원이라 현액하였다.

현종 10년(1669)에는 김상헌(金尙憲)과 정온(鄭蘊)을 배향하여 숙종 1년(1675) 삼신(三臣)의 서원으로 사액을 요청해 보았지만 비변사에 의해 거절되었다. 숙종 8년(1682)에 가서야 송인수(宋麟壽)를 배향하면서 사신서원으로

사액되어 서원으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숙종 21년(1695)에는 송시열(宋時烈)을 배향함으로써 오현 배향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서원이란 서재학교(書齋學校)와 선현선사(先賢先師)를 제사 지내는 사묘(祠廟)를 합친 것으로 단순히 글만 가르치는 서당, 서재(書齋), 정사(精舍) 등과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우(祠宇)나 향현사(鄉賢祠)와는 다르다. 특히 선현의 봉사는 곧 그 서원의 권위와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일종의 문묘종사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서원에서는 문묘종사와는 달리 어느 정도 자유롭게 모시고 싶은 유현들을 모셔 놓고 향사를 할 수 있어 수백 명에 달하는 유현들이 전국 각처의 서원들에 모셔지게 되었다.

유현배향이라는 일종의 문화적 결속은 교육에 의해 더욱 발전, 계승되었으며 특히 지방 사풍순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서원향사에도 사액, 비(非)사액의 구분이 있어 향사의 경중이 달랐는데 사전(祠典)의 경중으로 보면 문묘보다 한 등급 낮은 것이 사액서원향사였고 또 한 등급 낮은 것이 비사액서원향사였다.



사진 서원영

오현단의 조두석

이러한 이유에서 서원향사를 둘러싸고 문제가 많았는데 이를테면 현종 9년(1668) 이인 목사가 굴림서원에 그의 조부인 이약동을 배향케 하였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숙종 1년(1675) 위판이 철거되기는 했지만 향사인물의 선정에 따른 갈등이 만만치 않았다.

그런가 하면 송시열이 향사되던 숙종 21년은 이조판서 윤지선이 서원첩설이 있을 경우 그것을 저지하지 못한 지방관과 감사의 논죄를 청하자 국왕이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지방관의 연대책임하에 서원첩설이 금지되었던 시기로 향사인물 선정금령이 엄격하던 때였는데도 굴림서원의 경우는 쉽게 배향이 가능하였다. 굴림서원의 사액은 제주도라는 지리적, 정치적 여건에 따른 회유문제가 제일 큰 이유였다.



오현단 내에 복원된 굴림서원 전경과 현판

자진원명자

상징의 의미

서원향사에 있어서 사액과 비사액은 그 경중이 달랐다. 제주도의 서원은 모두 사액서원이었다. 사액이 되면 자연적으로 공인서원이 되어 전답과 노비 및 서책의 일정량을 동시에 하사받으며 서원의 재정을 국가에서 보충 받게 되기 때문에 사액을 받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 오현단은 조선시대 제주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매우 컸었음을 알 수 있는 자취로 중요하며 제주사람들에게는 학문의 성지로서 그 상징하는 바가 크다.

활용화 방안

- 굴림서원 복원을 통한 시대정신 구현 : 212년 동안 제주도 고등교육을 담당해왔던 굴림서원을 제대로 복원함으로써 당대의 제주도 교육정신을 재현.
- 굴림서원 복원을 통한 관광자원 확충 : 서원과 향교를 복원함으로써 제주도 관광과 연계된 품격 있는 관광자원 확충.

참고 자료

- 양진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문학과지성사, 1999.
양진건, 『제주교육행정사』, 조약돌, 2002.
양진건, 『제주유배문학자료집 I』,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제주도식고인돌

선정 취지

제주도의 고인돌은 한국 본토에서 들어온 탁자식·바둑판식·개석식 고인돌이 모두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한국 본토에서는 기원전 300년경에 이미 사라진 지상형 북방식 고인돌이 기원후 200년까지 잔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탐라형성기 말기에 이르러 제주도 지상형 고인돌은 상석 아래에 판석형 지석을 병풍처럼 고이고 지상에 위석형(圍石形) 돌방을 만든 고인돌로 축조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지상 위석형 고인돌은 한반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고인돌로, 이른바 ‘제주도식고인돌(濟州島式支石墓)’이라 한다.

정의와 개설

고인돌은 크게 지상에 4면을 판석으로 막아 묘실을 설치한 뒤 그 위에 상석을 올린 형식과, 지하에 묘실을 만들어 그 위에 상석을 놓고 돌을 괴는 형식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대체로 한반도 중부 이북 지방에 집중되어 있고, 후자는 중부 이남 지방에서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을 각각 북방식 고인돌과 남방식 고인돌이라고도 한다. 이밖에 지하에 묘실을 만들었으나 남방식 고인돌과는 달리 돌을 괴지 않고 묘실 위에 상석을 바로 올린 고인돌도 있는데, 이를 개석식 혹은 변형 고인돌이라고 한다.

제주도의 고인돌은 위에서 제시한 한반도 고인돌 3형식이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 좀더 구체적으로 매장부의 위치와 지석의 고임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사진 서현열

병풍처럼 지석을 둘러 축조한 용담동의 제주도식고인돌

6형식으로 나누어진다. 1형식은 지석(支石) 없이 상석이 지표에 막바로 닿는 개석식 고인돌이다. 2형식은 남방식 유형에 속하나, 전형적인 남방식에 비해 제대로 다듬지 않은 할석을 지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석의 숫자도 3~10매로 그 예가 다양하다. 3형식은 상석 한쪽이 아치형으로 개방되어 하부 매장부가 지상에 드러나 있고, 그 좌우와 들리지 않은 뒤쪽에 지석이 고인 형식이다. 4형식은 지석이 이중으로 고인 형식이다. 비탈면을 이용하여 한쪽은 작은 할석으로 받쳐져 있다. 5형식은 비탈면을 이용하여 높은 곳은 할석과 괴석을, 낮은 곳에는 판석을 고인 형식이다. 마지막 6형식은 상석 밑을 판석형 지석으로 완전하게 에워싸서 고인 형식으로 지상에 장방형 혹은 원형의 석실을 만든 형식이다. 대체로 1, 2형식은 매장부의 위치가 지하에 있는 지하형이며, 3, 4, 5형식은 반지상형, 5, 6형식은 지상형이다.

제주도의 고인돌 중 6형식은 북방식 고인돌처럼 추가장(追加葬)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형이다. 이 6형식 고인돌의 대표적인 예는 제주시 한천 번에 자리한 용담동 6호 고인돌과 외도천번에 자리한 광령리

4호 고인돌이다. 이러한 제주도식고인돌의 축조는 분명히 제주도의 다른 형식의 고인돌보다 많은 노동력과 전문 인력을 동원해야만 가능하다. 고인돌 내부와 그 주변에서는 직립구연토기, 외반구연 적갈색토기, 숫돌, 방추차 등의 유물이 수습되며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2~3세기경의 유물로 추정된다.

상징의 의미

제주도식고인돌, 일명 ‘지상형 병풍식 고인돌’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모두 고대 탐라의 큰 마을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정도의 규모는 읍락[邑落, 가구 500여 호(戶) 이상의 규모에 해당된다. 따라서 제주도식 고인돌의 존재는 탐라 지배엘리트층(首長層)의 등장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결국 제주도식 고인돌은 제주 섬이 갖고 있는 묘제의 전통성과 독특성이 함의된 장묘문화(葬墓文化)이다. 한국 본토의 두껍돌[蓋石]을 가진 횡구(塋)식 석실묘와 비견되는 탐라수장층(耽羅首長層)의 묘제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화상강진사

남원읍의 신례리2호 남방식고인돌

활용화 방안

- 고인돌의 공원의 건립 : 현재 제주도내에서 보존 상태가 양호하게 남아 있는 고인돌 군락은 제주시 외도동과 광령리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는 모든 형식의 고인돌 총 24기가 존재하고 있다. 부근의 광령리 암각화를 연계, 주술적 기능의 장소로 복원하여 옛 탐라인들의 생활체험 프로그램으로 개발, 문화관광 자원화한다.

참고 자료

강창화, 「古代 耽羅의 實體와 物資의 交流」, 『동아시아 역사상과 우리문화의 형성』,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고대사연구소, 2005.

강창화, 「耽羅 以前の 社會와 耽羅國의 形成」, 『강좌 한국고대사』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이청규, 『濟州島 考古學研究』, 學研文化社, 1995.

| 집필 강 창 화

호적증초

선정 취지

제주는 호적증초의 보고이다. 호적증초는 조선시대 마을단위로 주민을 조사해서 기록한 장부이다. 현재 제주에는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약 150여 년 간 3년 단위로 작성된 호적이 남아 있다. 20세기 전반에는 소위 ‘민적부’라는 호적 자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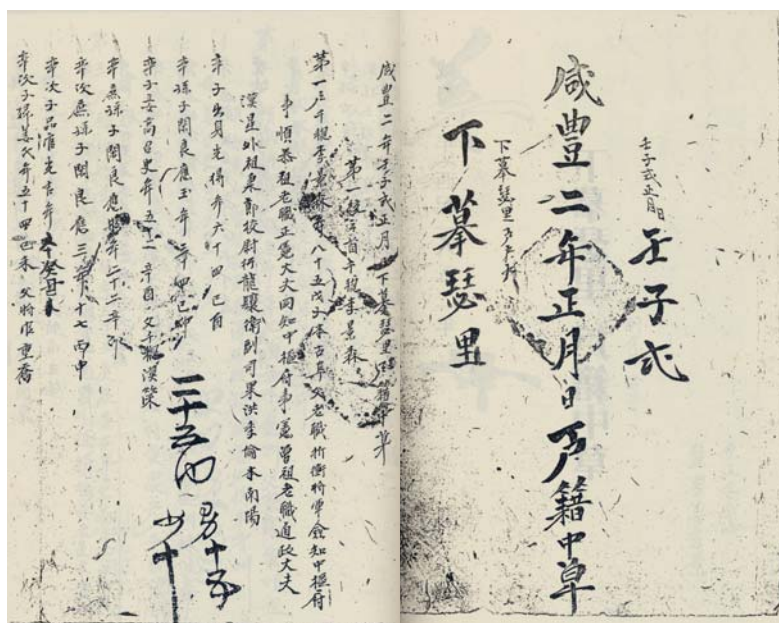
호적증초는 전통시대 제주의 신분구성, 가족구성, 인구구성, 혼인관계 등 다양한 제주인의 생활상을 밝힐 수 있다는 점과 중앙정부의 지방주민에 대한 통제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마을 단위의 주민에 대한 기록이 3년마다 장기간에 걸쳐서 남겨진 곳은 아마 세계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제주의 호적증초는 한국의 기록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야 할 정도로 가치가 높다.

정의와 개설

전근대사회인 조선시대에는 신분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통제가 매우 강하였다. 조선시대의 경우, 호구단자(戶口單子)·준호구(准戶口)·통적(通籍)·호적증초(戶籍中草)·호적대장(戶籍臺帳) 등 다양한 호적자료가 작성되었고, 호패법, 인보법 등의 제도가 병행해서 시행되었다.

호구단자는 호주가 해당 집안의 호구상황을 작성하여 관청에 제출하는 문서



함풍2년 하모슬리 호적중초

로 오늘날의 호적신고서라 할 수 있다. 준호구는 호주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관청에서 호적대장을 기초로 발급해 준 문서이다.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같은 것이다. 통적은 통(統 : 5호 1통, 혹은 10호 1통) 단위로 작성된 호적으로 호적중초와 함께 마을에 보관되어 있었다. 호적중초는 마을 또는 면 단위로 작성된 것으로, 각 기관에 보관하면서 모든 업무에 참고하였다. 호적대장은 호구기록에 관한 자료를 군현(郡縣), 즉 제주도를 예로 들면 제주목·대정현·정의현 관청에서 각각 책으로 엮어 보관한 것이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호구단자·준호구·통적·호적중초는 많이 확인되고 있으나, 군현단위로 작성되었던 호적대장은 확인된 바가 없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는 개별 가문에서 확인되며, 호적중초와 통적은 마을 단위에서 확인된다. 호적중초를 비롯한 호적 작성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에서 호(戶 : 집)와 구(口 : 사람)를 대상으로 군역(軍役) 등의 역(役)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신분관계를 규정해 놓음으로써 백성에 대한 국가의 지배를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식년(式年)이라 부르는 연도, 즉 자(子)·묘(卯)·오(午)·유

(西)의 간지가 포함되는 연도의 정월을 기준으로 호적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는 그 전년(前年) 7월부터 시작되었다. 호적이 작성되는 시기가 되면, 각 고을의 원님인 수령(제주의 경우 제주목사·정의현감·대정현감)은 호적의 작성 업무를 담당할 도감(都監)을 두고 본격적인 호적작성 업무를 시작해 나갔다. 호적을 담당한 사람은 각 집안에서 작성한 호구단자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이를 다시 마을을 단위로 전체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때 마을 단위로 작성된 호적을 호적중초라 하는 것이다.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작성한 호적중초와 각 집안에서 수합한 호구단자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 해당 관청에서는 지난 식년의 호적대장(3년전에 작성된 것)과 일일이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다. 이상이 있을 경우는 빨간 글씨로 정정하고, 몇 통 몇 호를 각각 기입하여 수령의 싸인이나 관인을 찍은 다음, 호적중초와 호구단자를 각 마을로 내려 보냈다. 각 마을에서는 호구단자의 경우 각 집안에 나누어 주고, 호적중초는 마을에 보관하면서 구역이나 세금 징수에 활용하였다.

현재 호적중초는 전국적으로 제주도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즉 대포리, 덕수리(자단리), 도순리(돌송리), 동성리(안성리), 사계리(금물로리), 월평리, 일과리, 중문리, 하모슬리, 하원리, 회수리(도문리), 도두리, 장전리, 상가리, 중엄리, 신평리, 색달리 등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다. 이들 호적 중초의 대부분은 대정현 지역에 치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목 지역의 경우는 도두리, 장전리, 상가리, 중엄리 등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으며, 정의현 지역은 신평리에서 1책만이 확인되고 있다.

상징의 의미

현재 남아 있는 호적 자료 중에 제주도 호적중초처럼 한 마을을 단위로 150여 간 3년마다 주민의 동태를 기록한 자료는 유일하다.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제주지역 향촌사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현재 호적중초 이상의 자료는 없다. 따라서 호적중초 자료의 체계적 연구는 조선후기까지 한국 본토와는 다른 역사적 삶을 살아왔고, 강요받아 왔던 제주도 향촌사회의 실상을 생생하게 복

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주의 역사 및 문화적 특성이 다른 지방과 다른 요소가 무엇이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 및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혀낼 수 있는 자료로서 그 의미와 가치가 크다.

활용화 방안

- 호적중초 전수조사 실시 : 현재 제주도의 호적중초 자료는 마을의 변화와 함께 매우 빠른 속도로 유실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 관리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호적중초 자료를 통해 연구가 가능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및 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제주지역 호적중초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책자로 영인하여 출판하며, 모든 호적중초 및 통적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학술자료화 한다.
-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추진 : 한국기록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의 등재를 추진한다. 세계기록문화으로 등재 가치가 충분하며, 이는 이미 지정된 세계자연문화유산과 함께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체계이다. 전통마을의 복원에도 적극 활용.

참고 자료

김동전, 「조선후기 제주 대정현 호적중초의 기초적 연구」, 『역사민속학』제 19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김동전, 「조선후기 제주지역 호적중초의 실태와 그 성격」, 『역사민속학』제 20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연구입문』, 민속원, 2008.

| 집필 김 동 전

제주삼양동선사유적

선정 취지

제주시삼양동유적은 기원전 3세기경 제주도 최초로 형성된 대규모의 마을 유적이다. 이 마을유적은 기원전 3세기경, 송국리 주거문화가 남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한국 청동기후기 마지막 단계의 대단위 취락 유적이다. 이러한 중요성이 인정되어 국가사적 제416호(1999.11.15.)로 지정되었고, 지금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정의와 개설

발굴된 고대 삼양동 마을 안에는 크고 작은 움집, 창고, 저장공, 토기가마, 조리장소 뿐만 아니라 마을 공간을 구획한 경계석축과 배수로, 그리고 폐기장, 패총, 고인돌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주거지는 모두 합하여 236기이다. 원형움집 173기, 장방형 대형 움집[長方形竪穴住居址] 17기, 부정형주거지 18기, 그리고 지상식 가옥 중 불다짐처리 주거지 20기, 창고[掘立柱住居址] 8기이다. 발굴되지 않은 유적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현재보다 3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삼양동 고대마을터의 원형주거지는 대부분 한국 본토의 송국리형주거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단면이 원형·타원형·삼각형인 점토 띠토기, 삼양동식 적갈색토기, 손잡이토기 등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또 석검, 석촉, 동검, 동촉, 환옥[環玉, 팔찌], 철기, 유리구슬, 검끝자루장식, 돌도끼, 돌



사진 강창화

복원된 삼양동 선사유적(위)과 발굴 당시 집자리



사진 강정화

삼양동 선사유적의 출토유물

대패, 숫돌, 갈돌, 갈판, 공이 등의 유물과 함께 쌀, 보리, 콩, 비자, 도토리, 복숭아씨 등의 불에 탄 씨앗[炭火穀物] 등도 확인되었다.

삼양동유적 주거군은 집자리 유구 자체가 완전한 정형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본토나 일본의 야요이시대 주거지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유적 한 가운데 집회용 노지(爐址)를 중심으로 작은 광장이 배치되어 있고, 그 주위로 원형주거지 다수가 둥그렇게 들어서 있는 ‘단위주거군(單位住居群)’의 정형성을 보인다. 즉 12~15기의 소형 주거지군 안에 6m 정도의 대형 주거지가 배치되어 있으며 대형 주거지 안에서만 중요 유물이 출토된다. 이들 대형 주거지에서는 환옥, 동검, 각종 옥과 구슬 등의 위세품(威勢品)과 대형그릇, 불탄 씨앗 등이 출토되었다.

삼양동 마을유적의 주거 공간배치와 출토유물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한 마을 안에서 신분에 따른 거주지 배치가 달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마을은 불평등한 계급사회를 반영하고 있으며, 탐라국 형성기(B.C.200~A.D.200)의 사회모습을 보여준다. 기원후 2세기경 고대 삼양동 마을은 읍락(邑落)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징의 의미

삼양동 고대 마을유적은 제주도 최초의 대단위 마을 유적이며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동이전(東夷傳)한조(韓條)에 등장하는 ‘배를 타고 왕래하며 한

(韓)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乘船往來 市買韓中)’는 ‘주호(州胡)’의 사료 내용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마을 유적이기도 하다.

또 기원 200년경에 제주시 한천 변의 용담동유적, 외도천 변의 외도동유적과 함께 가장 번창했던 3대 고대마을 중 하나로 특히 탐라소국(耽羅小國)으로 가는 열쇠를 제공하는 읍락[邑落 : 500여 호(戶) 이상의 규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직 구체화된 위계사회(位階社會)는 아니지만 초보적인 불평등 사회상을 유물과 유구로 확신시켜 주고 있다.

활용화 방안

- 삼양동 고대마을 주민의 생활문화 복원 : 이미 복원된 마을 현장을 활용, 실제적으로 이를 체험할 수 있는 선사인들의 생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선사인들의 생활체험은 단순한 놀이나 행사가 아니라 가족단위로 자녀와 함께 선사생활을 몸소 재현하는 가운데 선사문화를 배우는 학습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 강창화 · 김경주 외, 『제주삼양동유적 I · II』, 제주대학교박물관, 2000.
강창화 · 김경주 외, 『제주삼양동유적Ⅲ · V』, 제주대학교박물관, 2001.
강창화, 「耽羅 以前の 社會와 耽羅國의 形成」, 『강좌 한국고대사』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김경주, 「聚落을 통해서 본 耽羅의 成立과 展開」, 『제주도의 고고학』, 제13회 호남고고학회 발표요지, 2005.

잣성

선정 취지

잣성은 조선시대 국가가 제주도에 설치, 운영했던 국영목장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문화유산이다. 또 이것은 조선정부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제주도민과 중산간 초지라는 공간을 지배했던 제주역사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목축문화를 상징하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정의와 개설

‘잣성’은 목마장 경계에 쌓은 담장을 가리킨다. ‘잣’이라는 어휘는 ‘널따랗게 돌로 쌓아 올린 기다란 담’을 의미하며, 제주사람들은 잣성을 ‘잣’ 또는 ‘잣담’이라고 불려왔다. 현재도 ‘알잣(하잣성)’, ‘웃잣(상잣성)’, ‘하잣담’, ‘상잣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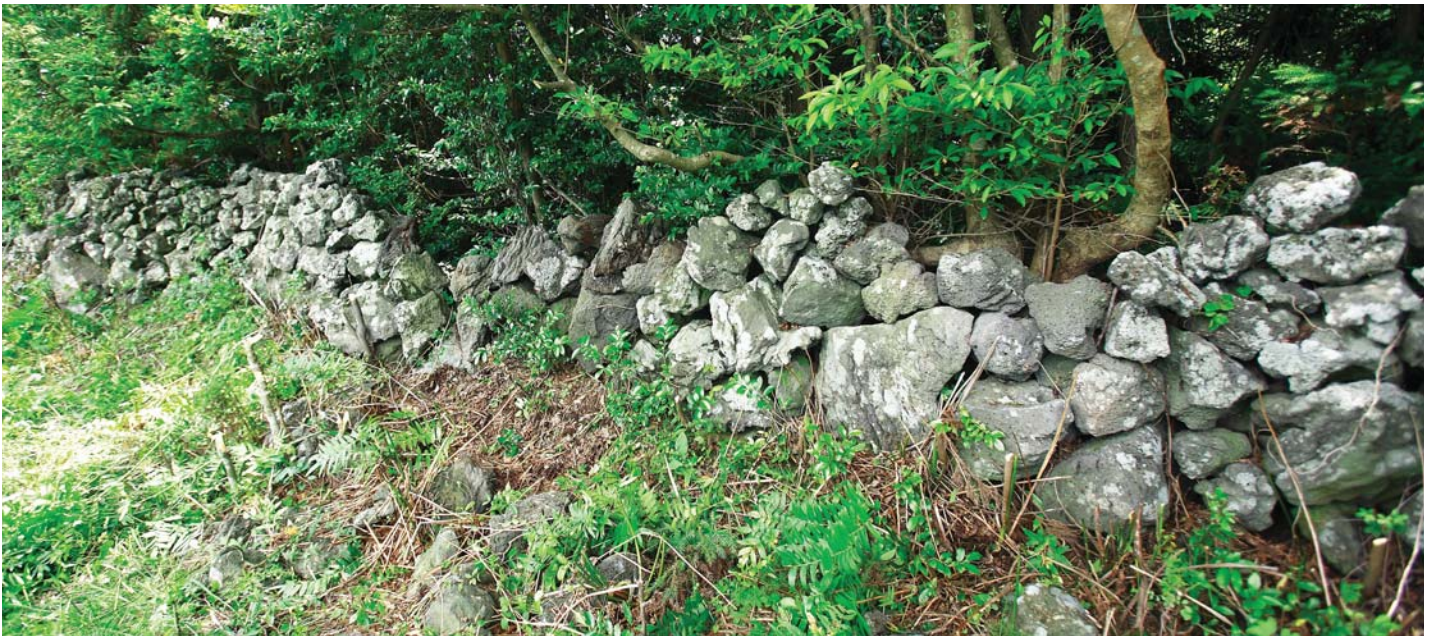
잣성은 『제주계록(濟州啓錄)』(1846~1884)에 ‘장원(牆垣)’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해발 150m~250m 일대에 하잣성, 해발 450m~600m 일대에 상잣성 그리고 해발 350m~400m 일대에 중잣성이 위치하고 있다. 하잣성은 해안지대 농경지와 중산간지대 방목지를 구분하는 경계부근에, 상잣성은 중산간지대 방목지와 산간지대 삼림지대를 구분하는 경계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하잣성은 방목중인 우마들이 해안지대 농작물에 입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축장되었다. 상잣성은 우마들이 한라산 삼림지대로 들어가 동사하거나 잃어버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잣성은 거주지역과 비거주지역, 농

경지와 방목지 그리고 초지대와 삼림지를 구분하는 경계선 역할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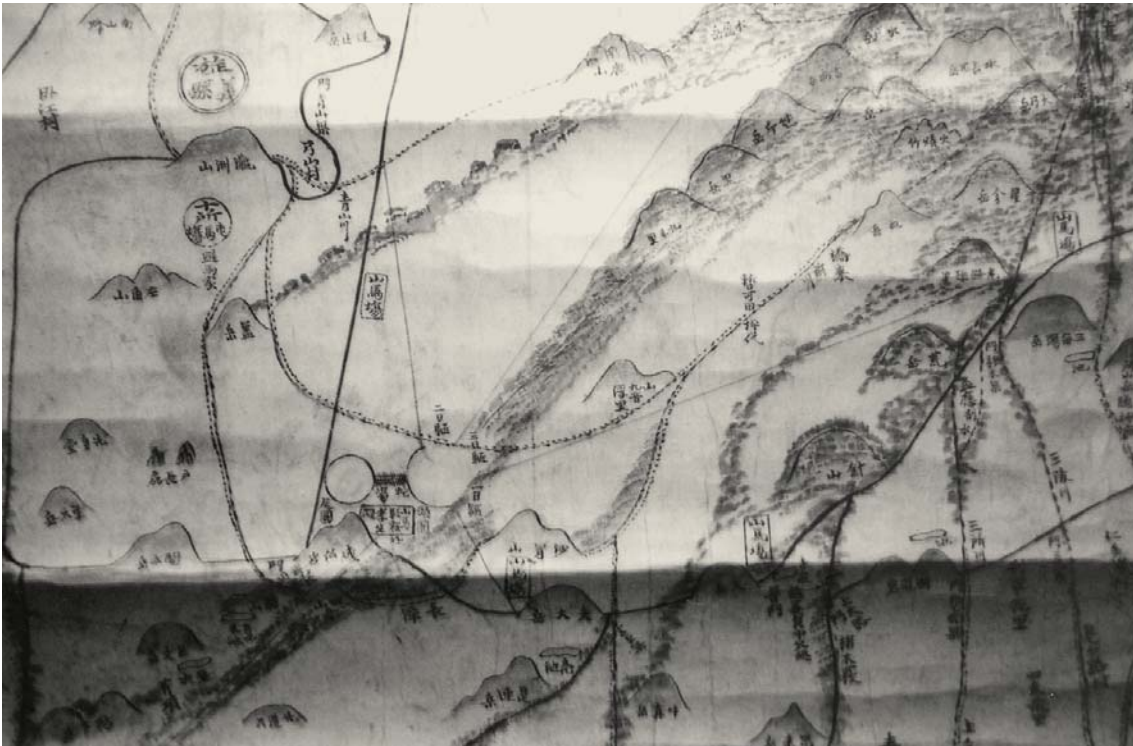
하잣성은 15세기 초부터 형성되었으며, 상잣성은 기록상 18세기 후반에 등장하지만 중잣성은 형성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상잣성과 하잣성은 제주도 전 지역에 존재하였으나, 중잣성은 제주도 동부 국영목장이었던 10소장과 1, 2소장 지역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상징의 의미

잣성은 목축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역사유물로, 단일 유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선형(線形) 유적이다. 이것은 첫째, 중산간 지대에서 행해진 목축이라는 경제활동을 대표하는 상징적 조형물인 동시에 조선시대 목마장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유물경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잣성이 비록 석성(石城)에 속하지만 방어 기능이 아니라 목장을



제주말(馬)문화의 대표유적인 꽃자왈의 잣성 / 사진 오희삼



조선시대 제주의 목장시설과 잣성 등이 잘 표시된 『제주삼읍도총지도』 일부

구분하는 경계용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선형의 유물로 제주도(한국전체)에 남아있는 역사유물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길다. 넷째, 단순한 돌무지가 아니라 제주도 선조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역사적 유물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현재 목축과 관련된 잣성이 제주도에만 분포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매우 크다. 앞으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아울러 잣성의 훼손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잣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민속자료로 지정하고 전통문화 학습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활용화 방안

- 대표적인 잣성을 문화재로 지정 : 돌문화 자원으로 잣성은 제주도 목장사와 목축문화의 상징으로 보존 상태가 좋은 곳을 골라 민속자료로 지정함.
- 학습자료 및 관광자원화 : 특히 도로변에 접해 있어 접근이 쉬운 잣성을 선정한 다음 목장사와 목축문화를 설명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참고 자료

- 『세종실록』 권 45.
『제주읍지』(1785~1789).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
『제주계록』(1846~1884).
『산마목장신정절목』(1794),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자료.

| 집필 강 만 익

진지동굴

선정 취지

진지동굴은 제주도 전역에 조성된 일제강점 말기 군사유적 가운데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유적이다. 또 현재까지 잘 보존된 일제의 전쟁 준비 시설로, 평화 교육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주도를 상징하는 오름 대부분에 인위적으로 파놓은 역사문화유적이기도 하다.

정의와 개설

‘진지동굴’, ‘진지갱도’, ‘땅굴’ 등의 용어가 두루 쓰이고 있다. 1945년 당시 제주도에 파견된 일본군 진지구축 부대와 관련된 기밀문서에는 제주도에 구축된 진지를 ‘동굴식 갱도(洞窟式 坑道)’로 기록하고 있다.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이 미군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일제는 제주도 공략을 예상하여 제주도를 전략상 중요지역으로 인식하였다. 1945년 2월 일본군은 미군과 일본 본토 결전에 대비하여 제주도 방어에 주력하는 ‘결(決)7호 작전’을 구상하였다. 1945년 4월 제주도 방비 강화를 위한 제58군 사령부가 신설되어 일본과 만주로부터 7만여 명의 대규모 병력이 제주도에 집결 주둔하였다.

일본군은 제주도에서 ‘결7호 작전’을 준비하면서 진지의 성격에 따라 위장진지(偽裝陣地), 전진거점(前進據點), 주저항진지(主抵抗陣地), 복곽진지(複郭陣地) 등을 제주도내 오름을 중심으로 구축하였다. 진지는 「제58군배비개전도」를 보면, 이들 진지가 구축된 오름의 위치가 뚜렷이 표시되어 있다. 지도를 통

해 확인되는 진지 수는 위장진지 23개, 전진거점 16개, 주저항진지 43개, 복곽진지 10개에 이른다. 이들 진지는 미군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한 제주도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상징의 의미

일본군 진지궤도는 태평양전쟁 시기 대표적인 일본군 군사유적으로 현대인들에게 과거 일본군이 벌였던 전쟁의 실상을 잘 말해준다. 일제강점기 전쟁의 흔적으로 전쟁에 광분했던 일제 전체주의의 흔적,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 준다. 일제 침탈이 제주도에 미쳤던 흔적이기도 하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역사공원이자 체험의 장으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이들 군사시설은 일제가 일본 본토를 지켜내기 위해 제주사람들을 볼모로



송악산의 진지동굴 / 사진 오희삼

삼아 옥쇄(玉碎)하겠다고 했던 결7호 작전의 결과물이다. 또한 제주사람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삼과 곡괭이를 들고 노역을 했던 피와 땀이 서린 역사적 현장이다. 일제의 전쟁 유산이라고 해서 무시해 버려서는 안 될 역사 교훈의 현장이다.

사적지로 역사적 가치,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화에 대한 기초학습장으로써 교육적 가치가 있다. 또 마라도-추사적거지, 유배문화관-대정성, 이재수관-대정향교를 잇는 역사문화관광의 주요 벨트로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

활용화 방안

- 풍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일본군이 남긴 군사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그 보존 및 활용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1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하였다. 진지경도를 비롯한 일제 전적시설은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군사유적을 통해 전쟁의 비극을 체험하고 평화를 바라는 교훈과 상징의 터전이 될 것이다.
- 문화재청이 2006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한 진지동굴은 어승생악, 첫알오름, 가마오름, 사라봉, 일출봉, 서우봉, 삼의양오름 등 7곳이다. 또한



강제동원되어 땅굴진지를 파고 있는 제주도민(위)과 땅굴진지에서 작전회의를 하고 있는 일본장교들(디오라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전쟁유적을 찾는 방문객, 관광객이 늘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보고서』, 2003.
제주도동굴연구소, 『제주도 일본군 진지동굴 · 전쟁유적조사보고서』 1, 2005.
「第58軍配備概見圖」, 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 1945.
조성운 외, 『빼앗긴 시대 빼앗긴 시절』, 선인, 2007.
조성운 외, 『일제하 제주도 주둔 일본군 군사유적지 현장조사보고서』 I, 2008.
츠카사키 마사유키(塚崎昌之), 「濟州島における日本軍の‘本土決戦’準備—濟州島と巨大軍事地下施設」, 『靑丘學術論文集』 22, 2003.

| 집필 박 찬 식

출륙금지

선정 취지

출륙금지는 제주사람들과 외부 세계의 교류를 금지했던 사건이다. 인조 7년(1629)부터 순조 23년(1823)까지 200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이 기간은 서세동점(西勢東漸)과 더불어 16세기 전반부터 유럽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억울하게 자그마한 섬 속에 유폐된 제주사람들은 왜구를 방어하고, 국축우마를 사육하고, 공물을 진상하는 등 과중한 부담과 부역에 시달려야만 했다. 출륙금지는 제주도민에게 섬이 가진 한계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단절과 암흑의 시대, 착취와 절망의 시대를 상징한다.

정의와 개설

제주 삼읍의 인구는 세종 16년(1434) 12월에 와서 민호(民戶)가 9,935호, 인구가 6만 3,474명으로 급격히 증가한다. 이에 조정에서는 과밀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 실업자는 전라도와 충청도로 이주시키고, 우마적(牛馬賊) 등 범죄자는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킴으로써 인구의 포화상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나게 되자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성종 1년(1470)부터 인조 2년(1624)까지 약 150년 동안에 섬 안의 굶주리는 백성들이 도외(島外) 각지로 유망(流亡)해 버리면서 세 고을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리하여 조정에서는 국법으로 유망을 금지하는 강경 조치를 취하게 되는

何向云○秋信使朴蘭英回自肅中胡差阿之好仲男從胡九名偕來徐副抱
欲斬偕來胡差陳劉兩將曰胡差殺之無益而麗人相離不無玉石俱焚之禍
力救乃止島中老弱樂盡載入登州○壬戌魏或使李曙出巡京畿兵○甲
子江原道三陟蔚珍杆城高城等邑大風雨禾穀漂沒○乙丑流星出奎星下
入驛星下○有盜入龍仁縣忠義李舜家稱以金吾捕逆賊舜及妻二女驅去
掠取家資舜及妻則棄之○濟州居民流移陸邑三邑軍額減縮備局請嚴禁島民
捕告捕盜竊杖殺之○戊辰上將行親祭於私廟下教曰時祭不可獨行於一
之出入上從之○室依上年附廟祭例行之禮曹啓曰上年附廟祭時以不可并祭於仁嬪之意
為啓而有一依五禮儀為之之教故付標以入而其時臺諫以不為申稟使
殿下卒行無據之禮為非此雖專為親祭未安之意而耳考乙丑年親祭儀註
亦無並祭仁嬪之文祭禮極重請議大臣行判中樞府事尹昉領相吳允謙左
相金瑬右相李廷龜等以為禮時享則奉祀之人當為主殿殿下之行時祀
於私廟恐不合宜霜露既降聖情休惕特為別祭以優追慕是則以義起者也
仁嬪同在一廟稱以別祭而并行奠禮亦或一道也謂之時祭則於私廟猶不

제주인의 출륙금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 기사

데, 이것이 이른바 출륙금지(出陸禁止)이다.

15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출륙한 제주사람들 즉, 제주도를 불법적으로 이탈하여 전라도와 경상도 연안에 정착하여 사는 제주사람들을 ‘두무악(頭無岳)’ 이라고 불렀다.

‘두무악’ 은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적 통치력이 강화되면서 제주도의 공물과 부역이 증대되고 관부의 수탈이 격심해지면서 발생하였다. 산물의 부족으로 곤궁한 생활을 면치 못하던 제주사람들이 과중한 부역을 감당하지 못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연해지역으로 출륙하여 정착한 두무악들은 언어와 습속 등 생활양식의 차이로 그곳 주민들로부터 기피되었고, 또 정부로부터도 치안을 이유로 강력한 통제를 받는다.

이리하여 두무악들은 전복을 따는 일과 같은 진상용 해산물을 채취하여 납부하는 일을 전담하면서 다른 지방사람과는 격리된 가운데 그들만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또 이들 두무악들은 수시로 원주지인 제주도로 추쇄(推刷)되기도 하였으나 점차 육지에서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구축하여 17세기 이후에 와서는 균역을 지면서 일반 서민들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상징의 의미

제주사람들은 외부사회와 절연되어 있었으므로 대외적인 제반활동이 정지되어 다른 지방과 교역을 통한 경제활동을 비롯, 문화 교류의 기회가 모두 상실되어 버렸다. 따라서 제주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빈곤을 면하지 못하였고, 또 문화적으로도 낙후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제주도는 오랫동안 이러한 특수사정에 있었기 때문에 오랜 전통적인 습속과 언어가 근세에 이르기까지 보유될 수 있었다.

제주사람들에게 있어 출륙금지가 자행되었던 200년에 가까운 세월은 갇힌 자의 슬픔을 반추하였던 시대였으며 꿈과 희망을 가지는 게 죄가 되던 시대였다. 이 시대는 폐쇄공간에서 무의식까지도 억압받았던 슬픈 역사를 상징한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제주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다른 지방과 일본 등지로 뛰쳐나갔던 데에는 이러한 억압된 심리적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

활용화 방안

- 오늘날에 와서 제주도에는 민속학, 언어학,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고 있다. 또 그들은 제주도가 학술상 귀중한 존재요 보고라고 한다. 출륙금지의 의미가 갖는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배경 및 그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연구하여 일반에 널리 알림과 동

시에 이를 이해하도록 교육활동에 널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세종실록』

『인조실록』

『현종개수실록』

高橋公明, 「中世 東亞細亞 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 『耽羅文化』 8,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9.

金泰能, 「濟州民의 流亡과 出陸禁止」, 『제주도』 27, 1966.

韓榮國, 「豆毛岳考」, 『韓右肋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 집필 고 창 석

법화사지

선정 취지

서귀포시 하원동 법화사는 제주시 외도동 수정사·삼양동 원당사와 더불어 고려 후기 제주지방의 대표적인 사찰이었다.

특히 비보사찰인 법화사와 수정사는 한라산 남과 북을 대표하는 사찰로 태종 8년(1408) 이전에는 사찰에 귀속된 노비가 각각 280명, 130명에 이를 정도로 큰 절이었다.

이로 미뤄볼 때 법화사는 당시 제주도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으며 제주도를 대표하는 고사찰(古寺刹)로서의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정의와 개설

법화사는 4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건물지 6개소와 조선시대 건물지 4개소, 초가 관련시설, 계단시설, 폐와무지, 화단, 건물간 보도 등이 확인되었다. 동근 초석에 테두리를 음각한 특수건물지의 대형초석과 이중기단석, 폐와무지에서 나온 전성기의 각종 최고급 청자, 용과 봉황문와당, 청동등잔 등은 13~15세기경 법화사의 화려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내섬(內贍)’ 명인화분청 등의 각종 분청사기류, 조선청자 등의 유물은 이 사찰이 적어도 조선 초기까지 제주도의 중요 사찰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법화사지는 크게 건물지와 연못이 자리했던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건물지 구역은 건물지와 기타시설물의 중복관계, 유물출토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크게 네 번에 걸친 시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차 시기(?~1269년경)는 특수건물이 들어서는 1269년 이전 시기이며, 2차 시기(1269~1400년경)는 원과 관련된 특수건물로 판단되는 B지구 건물의 존속시기이자 법화사의 전성기이다. 3차 시기(1400년경~1600년경)는 A지구 금당지, 법당·승방지와 계단, 담장지가 존재했던 시기이다. 그리고 4차 시기(1600년경 ~)는 사찰의 폐사에 이르는 시기(이원진의 『탐라지(耽羅志)』 대정현 불우조에 ‘금폐사(今廢寺)’ 기록 등장)로 이전의 위용있는 사찰건물이 서서히 없어지고 초가만 남아 그 명맥만 유지하는 시기이다.

연지 구역은 이미 1차 시기부터 자연적인 연못형태로 자리잡고 있었으며 2차 시기에 와서 사찰건물과 잘 어울리게 조성되었으나 4차시기에 와서 사찰 연지의 기능이 없어져 버린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원영자

고려시대 제주의 3대 비보사찰의 하나였던 법화사

상징의 의미

법화사지는 ‘지원육년기사시중창(至元六年己巳始重創) 십육년기묘필(十六年己卯畢)’이라는 명문된 기와가 출토되어 사찰의 중창은 1269년(원종 10, 己巳, 至元 6)에 시작하여 1279년(충렬왕 5, 己卯, 至元 16)에 마무리 되었다는 사실이 실제적 유물자료로 입증된 고사찰(古寺刹)이다.

또 명문기와와 더불어 테두리가 음각된 특수건물지의 대형 초석과 이중기단 석, 상품청자, 용[龍] 용의 양각수법, 주연내의 외곽띠, 기와재질 등이 원(元) 콩두미궁전에서 발굴된 막새와 유사과 봉황문막새, 청동등잔 등의 유물이 확인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자료

법화사 출토 운봉문막새(위)와 법화사의 중창연대를 알 수 있는 명문기와편

되었다. 이는 13~14세기경, 元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탐라총관부가 설치된 후 원에 의해 중창된 사찰건물 혹은 원(元)과 관련된 중요건물이 옛 법화사에 존속했음을 추측케 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보면, 원을 교체한 명이 제주 법화사 소재 미타삼존(彌陀三尊) 불상을 이송한 사건과 더불어 태종 8년(1408)에 법화사 소속 노비 280명을 30명으로 감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결국 고사찰 법화사는 13세기 중엽에서 14세기 말까지 원의 후원을 받아 제주에서 가장 화려한 사찰 건물로 자리잡고 있었으며, 그 당시 사세(寺勢)는 탐라총관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활용화 방안

- 제주불교사 자료관의 건립 추진 :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법화사지 유물과 유구를 활용하고 제주도 고사찰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자료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강창화, 「濟州 法華寺址의 考古學的 研究」, 『濟州島史研究』9, 濟州島史研究會, 2000.

김동전, 「법화사지」, 『耽羅, 歷史와 文化』,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1998.

제주대학교박물관, 『法華寺址』, 1997.

| 집필 강 창 화

고득종

선정 취지

조선 초기의 관료로서 당상관에까지 오른 제주도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중국 명(明)나라와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왔고 한성부 판윤을 지냈다. 관직에 있는 동안 제주도에 관한 일이라면 어느 것이나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제주사람들의 생활에 관한 것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제주도를 대표하는 문화상징인물로 선정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정의와 개설

고득종(高得宗: 1388~1452년)은 조선 초기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자는 자부(子傅), 호는 영곡(靈谷), 본관은 제주(濟州). 시호는 문충(文忠). 상장군(上將軍) 봉지(鳳智)의 아들이다. 태종 13년(1413) 생원(生員)으로 효행의 천거를 받아 직장(直長)이 되었고, 이듬해에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다. 대호군(大護軍)·예빈시 판관(禮賓寺判官) 등을 거쳐 세종 9년(1427)에는 문과중시(文科重試)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세종 19년(1437)에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가 되었고, 이듬해에 호조참의(戶曹參議)로서 관압사(管押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39년에는 통신사(通信使)가 되어 부사(副使) 윤인보(尹仁甫), 서장관(書狀官) 김예몽(金禮蒙)과 함께 일본에 가서 아시카가(足利義教)와 오우치(大內持世)의 서계(書契)를 가지고 돌아왔다. 1441년에 예조참의(禮曹參議)로 다시 성



사진 오혜산

고득종의 글씨로 알려진 제주목관아 홍화각 현판

절사(聖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43년에는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등을 역임하고, 1448년에 도전운사(都轉運使)가 되어 충청도와 전라도의 쌀을 평안도로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의 시문집으로는 『영곡유고(靈谷遺稿)』가 있다. 1934년 후손 동시(東是)가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4권 1책의 석인본이다. 권두에 이희진(李喜鎭)의 서문과 권말에 동시(東是)의 발문이 있다. 권1은 시 15수, 권2는 표 11편, 봉장(奉狀), 서(書) 2편, 권3은 교책문(敎冊文) 4편, 서(序) 1편, 기(記) 1편, 공이(公移) 6편, 권4는 부록으로 실록(實錄)·찬(贊)·신도비명(神道碑銘)·영곡재중수기(靈谷齋重修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안견(安堅)이 안평대군(安平大君)을 위해 그린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에는 그의 찬시(讚詩)가 올라 있다. 안평대군은 관덕정(觀德亭) 창건 당시에 고득종의 간청으로 현판을 써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사록(南槎錄)』에는 이 현판이 뒤에 불에 타 없어졌다고 하였다.



고득종의 별장터가 있었던 서귀포시 염돈과원 일대(탐라순력도)

기(記)에는 「홍화각기(弘化閣記)」가 있다. 1435년(세종 17) 안무사 최해산(崔海山)이 불타버린 관아 건물을 복원할 때에 홍화각(弘化閣) 등 여러 건물을 다시 지었는데, 홍화각기는 관아복원의 경위 등을 기록한 글이다. 또 ‘홍화각(弘化閣)’이란 현액(縣額)도 본인이 썼는데, 지금까지 전해 온다.

상징의 의미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인물로 부각 : 고득종은 관직에 있는 동안 사헌부를 중심으로 주변의 끊임없는 정치 공세와 ‘해외인(海外人)’이라는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세종대왕의 끊임없는 신임을 바탕으로 하여 세 차례에 걸친 사신의 임

무를 무난히 수행하였다. 항상 고향 발전을 정책에 반영하고 헌신했던 그의 소신과 의지에서 숭고한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또 그의 남달랐던 애향심은 교육현장에서도 부각시켜 후세에게 고향사랑의 의지를 전승할 가치가 있다.

활용화 방안

- 교육열이 높은 일반 대중에게 고득종의 애향심과 교육관이 호소력을 지닐 수 있도록 직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와 학원 현장에서 고득종의 상징성이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득종의 캐릭터 또한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太宗實錄』

『世宗實錄』

『文宗實錄』

高橋公明, 「濟州島出身の官僚高得宗について」, 『濟州島』 4, 耽羅研究會(東京), 1991.

高昌錫, 「夢遊桃園圖に對する高得宗の讚詩」, 『濟州島』 6, 耽羅研究會(東京), 19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 집필 고 창 석

읍성과 진성

선정 취지

조선시대 제주의 3읍과 9진성은 도적이나 왜적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제주를 보호하는 방어체계의 요체이다. 3읍성과 9진성은 세종 21년(1439) 제주도 안무사(都安撫使) 한승순(韓承舜)에 의해 본격 정비된 후, 을묘왜변과 임진왜란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었으며, 19세기에 이양선이 출몰하는 시기까지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3읍성과 9진성은 행정적인 기능과 군사적인 기능을 겸하면서 역사의 격랑 속에서 제주를 곳곳하게 지켜왔다. 그 속에는 제주의 문화와 선인들의 정서 및 애환이 배어 있다. 특히 제주의 자연환경과 지리적인 특성이 조화를 이루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

정의와 개설

제주의 3읍성은 제주읍성, 대정읍성, 정의읍성이다. 제주읍성의 정확한 건립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태종 8년(1408) 이전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정·정의읍성은 태종 16년(1416)에 3읍으로 분리된 후 축조되었으며, 성산읍 고성리에 축조된 정의읍성은 세종 5년(1423년)에 현 위치인 진사리(晋舍里·표선면 성읍리)로 옮겨졌다.

진성의 축조는 세종 21년(1439)에 제주도안무사(都安撫使) 한승순(韓承舜)이 차귀방호소와 수산방호소의 축조를 건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세종 25년

(1443)에는 명월, 서귀방호소에도 진성의 축조를 건의하였다. 중종 5년(1510)에는 제주목사 장림(張琳)이 2개의 진성을 수축했으며, 7개의 진성에 대한 축조를 건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신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수산, 차귀 외에도 명월·별방·서귀·동해진성의 축성 기록으로 나타나 있다.

조천진성은 선조 23년(1590)에 중창된 것으로 보아 16세기에는 이미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9개소의 진성 중 8개소도 이미 16세기 초에 축조, 개축되어 있었다. 모슬진성은 숙종 2년(1676)에 동해진성에서 옮겨졌으며, 화북진성은 숙종 4년(1678)에 축조되었다. 이로써 17세기에는 현재의 3읍성과 9진성에 대한 정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징의 의미

제주도 관방시설의 축조시기는 크게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 기는 3읍체제가 정비되면서 읍성이 축조, 정비된 시기다. 고려말 이후 계



구좌읍 하도리에 복원된 별방진성 / 사진 오희삼

속되는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호소 9개소, 수전소 21개소와 봉수 22개소가 정비되었다. 세종 21년(1439) 제주도안무사 한승순의 건의가 계기가 되어 9개의 방호소중 수산과 차귀방호소에 진성이 축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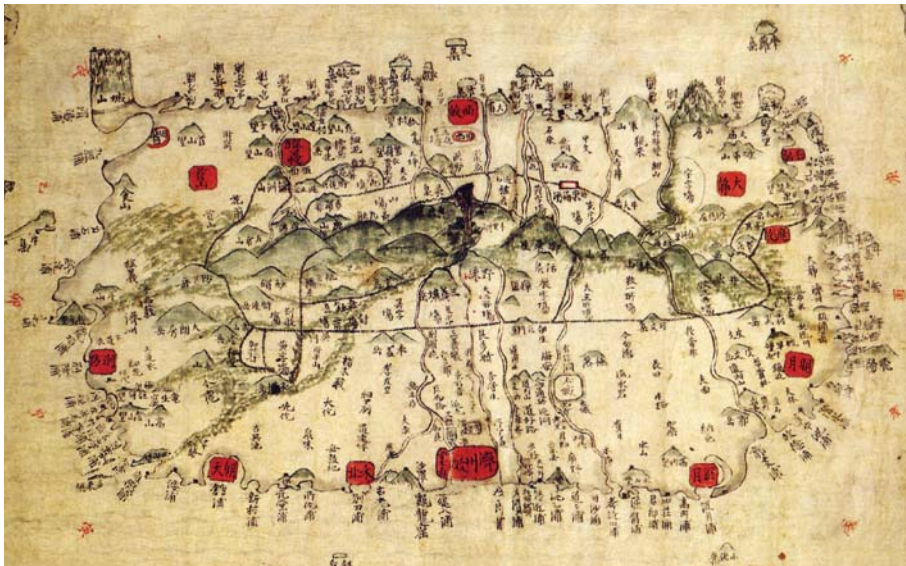
Ⅱ기는 중종 5년(1510)에 발생한 삼포왜란이후 연해 지방을 침략하는 왜노(倭奴)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방호소는 13개소로 증설되었다. 장림 목사의 건의로 성곽이 없던 방호소 중에 명월·별방·동해·서귀진성이 축조되었으며, 이 무렵에 조천진성과 애월진성도 개축되었다.

Ⅲ기는 숙종 때 성곽이 없었던 화북방호소에 진성이 축조되었고, 동해진성은 모슬진성으로 옮겨졌다. Ⅱ기 때의 13개소 방호소가 9개소로 축소되었다.

Ⅳ기는 방호소의 증설은 없이 진성의 보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V기에는 읍성과 진성의 보수와 정비만 이루어졌다.

이처럼 3읍 9진성의 관방시설은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끊임없이 변모하면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영토를 보존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교두보이자 제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었다.



제주지 자료

『탐라순력도』에 기록된 18세기초 제주지역 읍성과 진성 실태

활용화 방안

- 『탐라순력도(보물 652-6)』의 그림과 기록에 나타나는 제주의 관아와 성읍, 군사 등의 시설과 지형, 풍물 등 18세기의 3읍성 9진성의 실체와 문화상을 복원한 후, 이에 대한 관광자원화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함.
- 탐라순력도는 18세기 초의 ‘제주문화관광가이드북’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관아, 병영, 놀이, 복식 등의 고증과 현대화 작업.

참고 자료

김명철, 「朝鮮時代 濟州島 關防施設의 研究-邑城, 鎭城과 烽燧, 煙臺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명철, 「朝鮮時代 濟州島 關防施設의 研究-3邑城과 9鎭城을 중심으로」, 『濟州島史研究』9, 濟州島史研究會, 2000.

김봉옥 · 신석하, 『濟州의 防禦遺跡』, 제주도, 1996.

| 집필 강 창 화

탐라

선정 취지

탐라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탐라국이 자리했던 곳으로, 고고학적으로 유물 유적이 산재해 있을 뿐 아니라 자연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역사·문화적 상징성이 한층 분명해졌다. 근래에 와서 탐라문화권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그 연원이 오래된 만큼 ‘탐라’ 혹은 ‘탐라국’의 문화유산을 개발함에 있어 문화상징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정의와 개설

탐라는 제주도의 옛 이름이다. 또 탐라는 예전에 제주도에 있었던 탐라국을 지칭하기도 한다. 문헌에 따라 섭라(涉羅)·탐모라(耽牟羅)·담라(儋羅)·탁라(托羅, 毛羅) 등으로도 표기되었다. 그 중 삼국시대부터 고려 및 조선시대까지 가장 오랫동안 불리어졌던 칭호는 탐라(耽羅)였다. 이 탐라의 어의에 대해서 조선 후기 한치윤(韓致堧)은 『해동역사(海東譯史)』(耽羅)에서 “『후위서』에는 섭라(涉羅)라 칭하였고, 『수서(隋書)』에서는 담모라라 칭하였으며, 『당서(唐書)』에서는 담라(儋羅)라 칭하였다. 또 탐부라(耽浮羅), 탁라(毛羅)라 칭하였는데, 이는 모두 한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방언에 도(島)를 ‘섬(陬)’이라 하고 국(國)을 ‘나라(羅羅)’라 하는데, 탐(耽)·섭(涉)·담(儋) 세 음(音)은 모두 섬과 음이 비슷하니, 대개 섬나라를 이르는 것이다.”라고 일찍이 그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즉, ‘섬나라’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주도에 대한 여러 가지의 호칭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시대에 따라 다소 조금씩 다른 호칭으로 사용되었으나, 대체적으로 볼 때에는 거의 동일한 명칭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상에 열거한 여러 가지 호칭 중에서도 특히 ‘탐라(耽羅)’라는 호칭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명칭이 되어 오랫동안 그리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지금까지도 이 명칭만은 제주라는 호칭에 대신하여 회고적(懷古的)인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탐라라는 명칭은 『고려사』에 의하면, 고종 16년(1229) 2월 27일



탐라에 대한 기록들

좌로부터 삼국지 위지동이전 마한조, 삼국유사 황룡사구층탑조, 삼국사기 백제본기 문주왕조, 삼국사기 백제본기 위덕왕조

자에 “송나라 상인 김인미(金仁美) 등 2명이 모두 제주(濟州)에서 표류되어 갔던 양용재(梁用才) 등 28명과 함께 왔다.”고 하여, 고종 때에 와서는 탐라라는 명칭이 이미 제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삼별초 정벌 이후 제주도가 원(元, 몽골)나라의 직할지가 되면서 원나라에서는 제주라는 명칭 대신에 탐라 혹은 탐라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제주도와 고려의 관계를 차단시켰다. 이후 충렬왕 20년(1294)에 제주가 고려에 반환되면서 다시 제주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해(1295, 충렬왕 21) 윤 4월 9일자에는 비서성 판사(判秘書省事) 최서(崔瑞)를 보내어 제주 목사(牧司)로 삼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탐라와 제주라는 두 명칭이 혼용되면서 조선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상징의 의미

탐라는 제주사람들에게 천년의 역사와 독특한 해양문화를 꽃피웠던 해양왕국으로 상징된다. 바다와 대지를 무대로 한 신화를 모태로 생성된 탐라 즉, 제주도는 탐라국의 터전으로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역사문화의 도시로 부각시켜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탐라문화의 유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보존 방안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활용화 방안

- 상징물 제작 : 탐라 혹은 탐라국은 제주도의 상징이기에 다양한 문화콘텐츠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탐라를 주제로 한 상징물의 제작하여 적극적인 대외 홍보물로 활용.
- 탐라문화제나 탐라입춘굿놀이 등 기존축제의 관광상품화, 영상물의 제작과 배포, 활용.
- 탐라를 상징하는 문양 개발 : 기와의 문양이나 유물에서 독특한 문양을

선정,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디자인 개발, 탐라국의 상징으로 적극 홍보, 토산품 등에 활용한다.

참고 자료

韓致滄, 『海東繹史』

高昌錫, 「濟州·康津關係史」, 『古代濟州海路테우探查綜合報告書』, 濟州新聞社, 1986.

高昌錫, 『耽羅國史料集』, 新亞文化社, 1995.

| 집필 고 창 석

